

리아호나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4쪽, 12쪽**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에 대한 간증, 16쪽
값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빛을 지고
있기에, 56쪽

어린이 미술 전시회: 복음은 제 삶을 축복해
줘요, 62쪽



십 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썼다. “구주를 기억하는 일에는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며, 이것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빵과 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 삶에 영원하고 신성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2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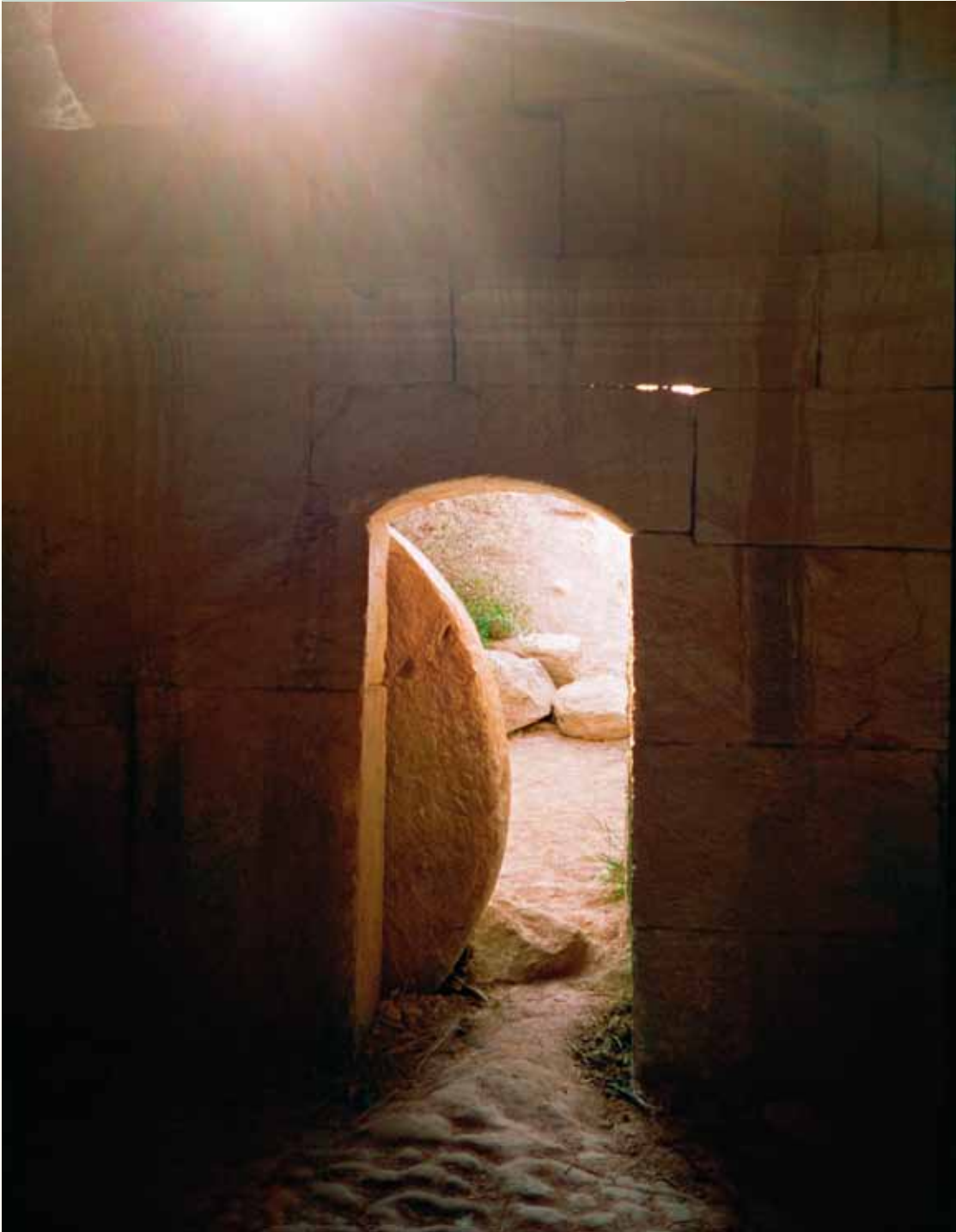


© SCALA/ART RESOURCE, 뉴욕

Ecce Homo(보라 이 사람이로다), 안토니오 시세리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 주더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연도하고
 ……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복음 23:13~14, 16~18, 20~25)



부활절 아침, 스티븐 에드워즈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누가복음 9:2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1~2, 5~6)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상호부조회 목적

특집 기사

- 20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구주를 기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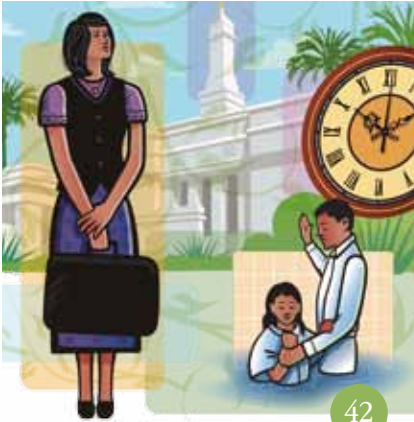
표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월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 28 레베카 스웨인 윌리엄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재니스 린 존슨
그녀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변함없이 복음에 충실했다.
- 32 마셜 제도에서 찾은 올바른 향해술
조슈아 제이 퍼키
때로 우리는 험악하고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마이클 알 모리스

- 12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 14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치유를 받으라
데이비드 엘 프리쉬크네흐트
- 16 복음 고전: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겿세마네의 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가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래리 힐러



42

42 성약은 영원하다

마르타 발렌시아 바스케즈
청녀 시절에 코스타리카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언젠가 성전에 가리라고
결심했다.

44 마침내 귀를 기울였다

익명
매들린과 데이트하는 내내 영은
나에게 표준이 높은 여성하고만
데이트하라고 속삭였다.

46 질의응답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가고, 가정의
밤도 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48 포스터: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49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76:22~24

50 재건의 보상

애슐리 다이어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나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52 경전의 힘

애덤 시 올슨
이 두 타히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전을 한 번 읽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55 선교 임지에서: 축복문에서
실마리를 찾다

스코트 탈보트

56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비유는 정의,
자비, 속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70

59 나이아의 선택

마르셀 니용기
나이아는 가게 주인이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선택을 해야 했다.

60 부활절 주간

우리가 부활절을 하루로 기념하지만,
그것은 사실 구주의 삶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사건과 관계가 있다.

62 전 세계 어린이 미술 작품

어부, 성전, 선교사 등

65 특별한 증인: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66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아나 마리아 코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8 행복한 우리 집

채드 이 패러스
캄보디아에 사는 한 형제와 자매가
자신들이 행복한 이유를 들려준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50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실마리:
아름다운 공주



2011년 4월호, 제48권, 제4호
리아호나 09684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버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프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기구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트, 라렌 포터 고틀,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코, 조슈아
제이 피카, 채드 이 페라스, 찬 핀보로우, 리처드 롬폴나, 돈 엘 설, 제인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듀서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베베르 오우,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스킵트 엠 유이, 지니 제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34호, 제48권, 제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현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lds.org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iahona.lds.org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4)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미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지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iahona.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April 2011 Vol. 35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
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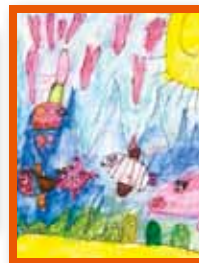
www.liahona.lds.org에서 마셜 제도
회원들의 개종 이야기(32쪽)와 사진을 더
볼 수 있다.

청소년



두 타히티 청소년은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여 삶을 변화시켰다.(52쪽)
www.seminary.lds.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어린이



www.liahona.lds.org에서
62~64쪽에 실린 국제 미술 전시회의 **예술 작품**
23점과 기타 출품작을 찾아본다.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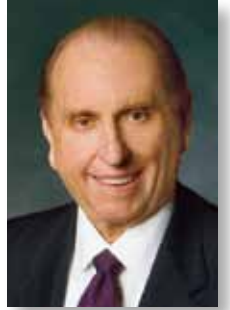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에 실린 주제들

숫자는 기사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 | | | |
|------------------------|--------------------------------|---|
| 가족 , 46 | 부활 , 4, 16, 49, 60 | 역경 , 46 |
| 개인적인 가치 , 50 | 사랑 , 41 | 예수 그리스도 , 4, 12, 14,
16, 20, 48, 49, 56, 60, 66, 80 |
| 개종 , 28, 32, 38 | 상호부조회 , 7 | 의로움 , 65 |
| 경전 공부 , 52, 68 | 선교 사업 , 28, 55 | 자비 , 56 |
| 공의 , 56 | 선지자 , 10 | 재능 , 62 |
| 교회 역사 , 8 | 성신 , 44 | 정직 , 59 |
| 교회 지도자 , 9 | 성약 , 42 | 취업 , 9 |
| 구원의 계획 , 41 | 성찬 , 20, 48 | 치유 , 80 |
| 기도 , 40 | 세미나리 , 52 | 표준 , 44 |
| 도덕성 , 42, 44 | 속죄 , 12, 14, 16, 39, 66 | 활동화 , 32 |
| 모범 , 32 | 신성한 성품 , 70, 72 | 회개 , 12, 14, 32, 39 |
| 미술 , 62 | 신앙 , 32 | |
| 봉사 , 11, 41, 50 | 신약전서 , 60 |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호숫가에 자리한 도시, 구주의 갈릴리 성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은 오늘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곳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으며, 여러 가정에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성역 초기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이사야 61:1; 또한 누가복음 4:18 참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계획을 널리 밝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것은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자는 늘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 위에서 만나게 될 두려운 상황을 직시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낸 뒤 겻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고, 제자들에게 버림 받고, 참뱀을 당하고, 재판에 부쳐지고, 모욕을 겪으신 예수님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진 채 비틀거리며 갈보리로 향하셨습니다. 승리의 입성 이후 그분은 계속 배신과 고문, 십자가 위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거룩한 성[The Holy City]이라는 노랫말을 살펴봅시다.

*풍경은 바뀌었다. ……
차갑고 쌀쌀했던 그 아침,
한 외로운 언덕 위로
십자가 그림자 드리웠기에.¹*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만행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와 지구, 그곳에 거하는 모든 생명,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모든 기독교 말씀 중에 이것보다 제게 더 뜻깊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돌보려 무덤으로 다가가며 흐느끼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과, 지금 살아 있으나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아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선언과 동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영혼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훌륭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화합하도록 독려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나누고 상대방 말을 경청할 때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즐길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가 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63쪽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에 관해 경건하게 간증을 나눌 때 더욱더 화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합된 가족은 몬슨 회장의 권고에 따라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고린도전서 15:40~42)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싶은 곳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시며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본보기이시며, 또한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지만, 의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부활한 주님으로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4)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²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

주

1. Frederick E. Weatherly, “The Holy City”(1892)

2.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청소년

주님께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세에서 제정된 계획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려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그분처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모사이사야 5:15)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전념하셨으며, 자신의 거룩한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

여러분은 전세에서 발표된 그 놀라운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계획이 받아들여진 이래로 여러분이 지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계속 예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와 장소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충실하고 순종할 때 이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보인 “지극한 신앙과 선행”(앨마서 13:3)을 기초로 마련되었습니다. …… 여러분이 해내야 하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신성한 임무를 성취하고 행복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16쪽.

어린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몬슨 회장님은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죽은 뒤에도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아래 설명대로 해 보세요.

설명: 왼쪽에 있는 가족들은 죽음 때문에 서로에게서, 그리고 구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장을 복사하거나 www.lds.org에서 인쇄하거나, 또는 구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점선으로 된 부분을 모두 접어 종이 아래에 있는 별 모양이 서로 맞닿게 하고, 어두운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세요.





신앙 · 가족 · 구제

상호부조회 목적

저희 회장단은 부름을 받으면서 상호부조회 역사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주님께서 저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료를 연구했습니다. 저희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분의 딸들이 영생을 축복받을 수 있게 준비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고 고취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각 자매와 상호부조회 조직 전체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 신앙과 의로움을 키운다.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3.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여 위안을 전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계시를 구하고 받으며 그에 따라 행할 때에만 주님의 방법대로 이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니파이의 성신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니파이후서 32:5)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들을 만한 침착하고 차분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돕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주님의 사업은 그분의 딸들이 돕지 않는다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훌륭하게 성취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십니다.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구에서

신명기 6:5~7; 누가복음 10:30~37; 야고보서 1:27; 니파이후서 25:26; 모사이아서 3:12~13

신앙과 의로움을 모범으로 보인 여성에 관한 기사를 읽으려면 28쪽을 참조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자매들이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어떤 영감을 받았는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나는 신앙을 강화하고 의로워지겠다는 결심을 키우기 위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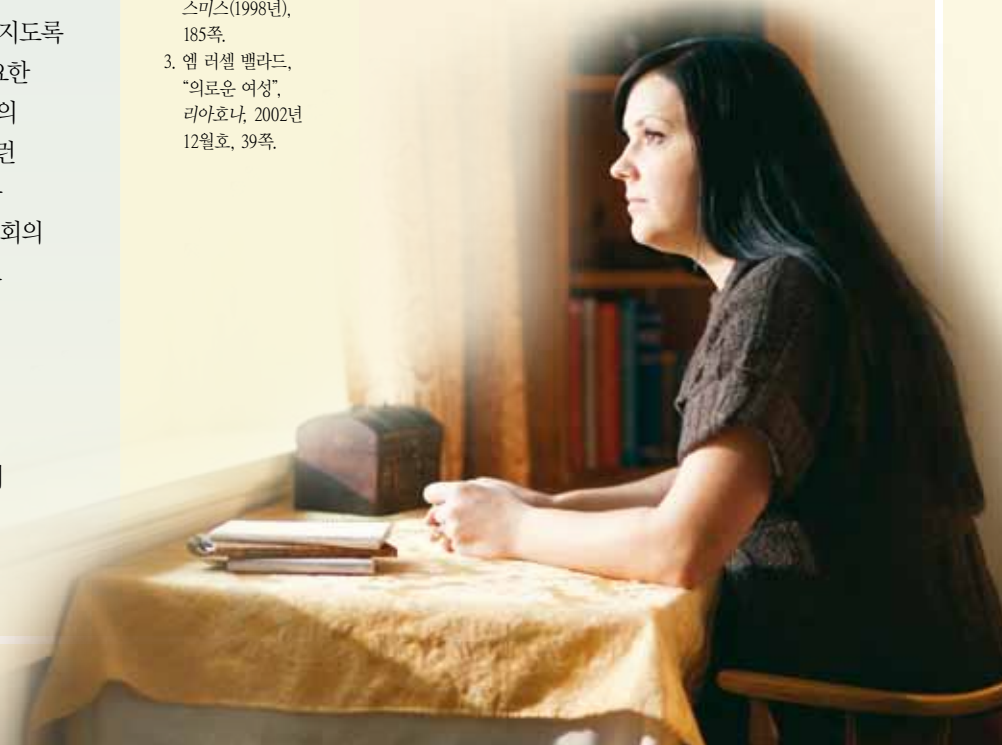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 를 방문한다.

주

1.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5:25.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185쪽.
3.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9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1842년 6월 9일에 열린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상호부조회 조직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야”¹ 한다고 가르쳤다. 현세적 목적과 마찬가지로 영적 목적을 다루는 이 말씀은 상호부조회가 시대를 흘러 지속되는 동안 이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 되었다. 1906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상호부조회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돌볼 뿐만 아니라,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의 영적 복지 및 구원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불행과 재난, 어둠의 권능, 또한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살피는 것도 포함되며, 이는 어쩌면 상호부조회 의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² 200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고,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³



작고 단순한 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세계 교회 역사 탐방



마셜 제도

제 2차 세계대전 때 마셜 제도에 들어간 교회 회원들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7년 2월이었다. 그 해에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의 윌리엄 워들 장로와 스티븐 쿠퍼 장로가 이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되었다. 업무 상 마셜 제도로 이주한 교회 회원인 엘드리드 퓨크스에게서 도움을 받아 선교사들은 다른 교회의 건물에서 예배 모임을 하기로 했다.

첫 해에 선교사들은 개종자 27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3년 뒤 마셜 제도는 마이크로네시아 괌 선교부에 편입되었다. 1984년,

마셜 제도 마주로 지방부가 세워졌다. 교회 회원이 꾸준히 늘어나 1991년에 두 번째 지방부가 과절린 환초(태평양과 인도양에 분포하는 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산호초-웁긴이)에 세워졌다. 2006년에는 마셜 제도 마주로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그 뒤로 3년간 활동 촉진, 개종자 침례, 지역 지도자 강화에 힘쓰자 활동 회원이 현저히 늘어났다. 그 결과 2009년 6월 14일, 마셜 제도 마주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마셜 제도 회원들의 신앙과 개종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려면 32쪽을 살펴본다.

연차 대회에서 배우기

제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여 제각기 가정과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함께 배울 훌륭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가 끝나면 한 달 동안 www.conference.lds.org에 실린 말씀을 연구하고, 인도와 지침과 위안을 주는 글귀들을 고릅니다. 다음 여섯 달 동안 날마다 하나씩 읽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을 모읍니다. (즉, 4월에 저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날짜별로 한 글귀씩 찾습니다.) 그런 다음 사본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나눠 줍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연차 대회를 공부하는 보충 자료가 되고, 가족끼리 그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연차 대회 후 수개월간 가족이 함께 선지자들의 권고를 되새기는 일은 멋진 경험입니다.

크리스틴 티펫츠, 미국 유타 주

마셜 제도 교회	
회원	4,486명
선교부	1개
스테이크	1개
지방부	1개
와드 및 지부	11개

제이 르우벤 클라크 2세: 예사롭지 않은 은사들의 소유자



법학 석사 학위와 명석한 두뇌로 무장한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는 법학 및 정부 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1930년에 마침내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가 되었다. 그러나 클라크 형제는 1933년 4월 6일, 제일회장단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제2보좌로 지지받게 됨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대제사이긴 했으나 총관리 역원은 아니었다. 그는 사도로 성임된 후 1934년 10월에 그랜트 회장의 제1보좌로 지지받았다. 클라크 회장은 계속해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보좌로

선교부 회장인 러몬트 토론토와 함께한 클라크 회장(왼쪽).



조 시아 르우벤 클라크 이세는 1871년 9월 1일, 유타 주 그랜즈빌에서 태어났다.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이학 학사 학위를 받으며 과에서 1등으로 졸업했다. 또한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 학위를 받았다.

클라크 형제는 1898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루아시네 안네타 사비지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1945년도 제일회장단(왼쪽부터):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히버 제이 그랜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봉사했다.

클라크 회장이 교회에 기여한 많은 일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형제가 교회 회장이 되었을 때 보여 준 겸손이다. 맥케이 회장은 클라크 회장을 자신의 제2보좌로 불렀다. 클라크 회장은 그전 제일회장단에서 제1보좌로 봉사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가 무시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클라크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점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회원들은 온당하게 부름 받은 위치에서 봉사할 뿐, 어떤 직책을 구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클라크 회장은 1961년 10월 6일에 별세했다.

주

1. J. Reuben Clark Jr.,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154쪽.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 워크숍

후 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에서는 직장을 찾거나 학교에 등록하거나 자영업 시작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사람들이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직업 교육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 직업 교육에서는 직업 목표 정하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 찾기, 이력서 쓰기, 새로운 일자리에서 성공하기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여러분 주위에서 워크숍 교육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문의하거나 www.ldsjobs.org 를 방문하여 “Find a Center”를 선택한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토 요일이면, 아르헨티나 추부트 주 남부 누에보 만 연안에 위치한 푸에르토마드린에 있는 집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엘비라 과글리아렐로 자매를 볼 수 있다. 그녀는 밀가루와 물의 양을 재고 다른 재료를 집는다. 일하는 동안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실은 말보다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지금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중이다.

“좋은 일을 하는 거라서 기분이 좋아요.” 재료를 섞으며 과글리아렐로 자매가 말한다.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일하는 동안 구주를 떠올리며, 자신이 하는 봉사로 교회 회원들이 구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하다.

올해로 여든두 살인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 방문 교사로 봉사하고 와드 음악 지휘 일을 돕는다. 또한 성찬식에 쓰일 빵도 만드는데, 이 일은 과글리아렐로 자매가 거의 10년 동안 영화롭게 수행해 온 부름이다. 주 초에는 자신이 먹을 빵을 만들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과글리아렐로

자매의 말처럼 “교회를 위해 특별한” 빵을 만들 시간을 마련한다.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빵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교회에 가는 거야.’ 저는 교회에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1년에 한 번 2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달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 참석한다.

“과글리아렐로 자매님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늘 기쁘게 봉사하십니다.” 감독인 헤수스 산토스 구미엘 형제는 말한다. “자매님은 와드 회원들에게 든든한 분이시죠. 그 연세에도 성실하게 매주 토요일에 빵을 준비하셔서 안식일에 교회에 가지고 오시거든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시죠.”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1962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에 위치한 마르델플라타 지역에 있는 한 하숙집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묵던 전임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다. 15년이 흐른 후,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엘비라 과글리아렐로

푸에르토마드린으로 이사해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토론을 듣고 침례 받았고, 이로써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현재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경전과 와드 가족들이 곁에 있고 기도로 자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님께서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영이 늘 그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¹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과글리아렐로 자매는 웃으며 말한다. “교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늘 있고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사할 때면 언제나 기쁩니다.”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9쪽 참조; 또한 요한복음 14:16~18; 교리와 성약 88:3 참조.

노년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우리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는 동시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교회의 노년층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봉사할 것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1. 성전에서 봉사하고 자주 참석한다.
2. 가족 역사를 모으고 기록한다.
3. 선교 사업에 동참한다.
4. 가족과 단란하게 지낸다.
5.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수행한다.
6.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한다.
7.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낸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연로한 회원들에게 드리는 말씀”,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4~6쪽에서 발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지상에 거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로마서 3:23; 요한1서 1:8 참조)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로 어기는 것이며, 모든 죄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공의에 따라 벌을 받습니다.(앨마서 42:16~22 참조)

어떤 죄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니파이전서 10:21 참조) 이런 분리는 매우 엄정하여 우리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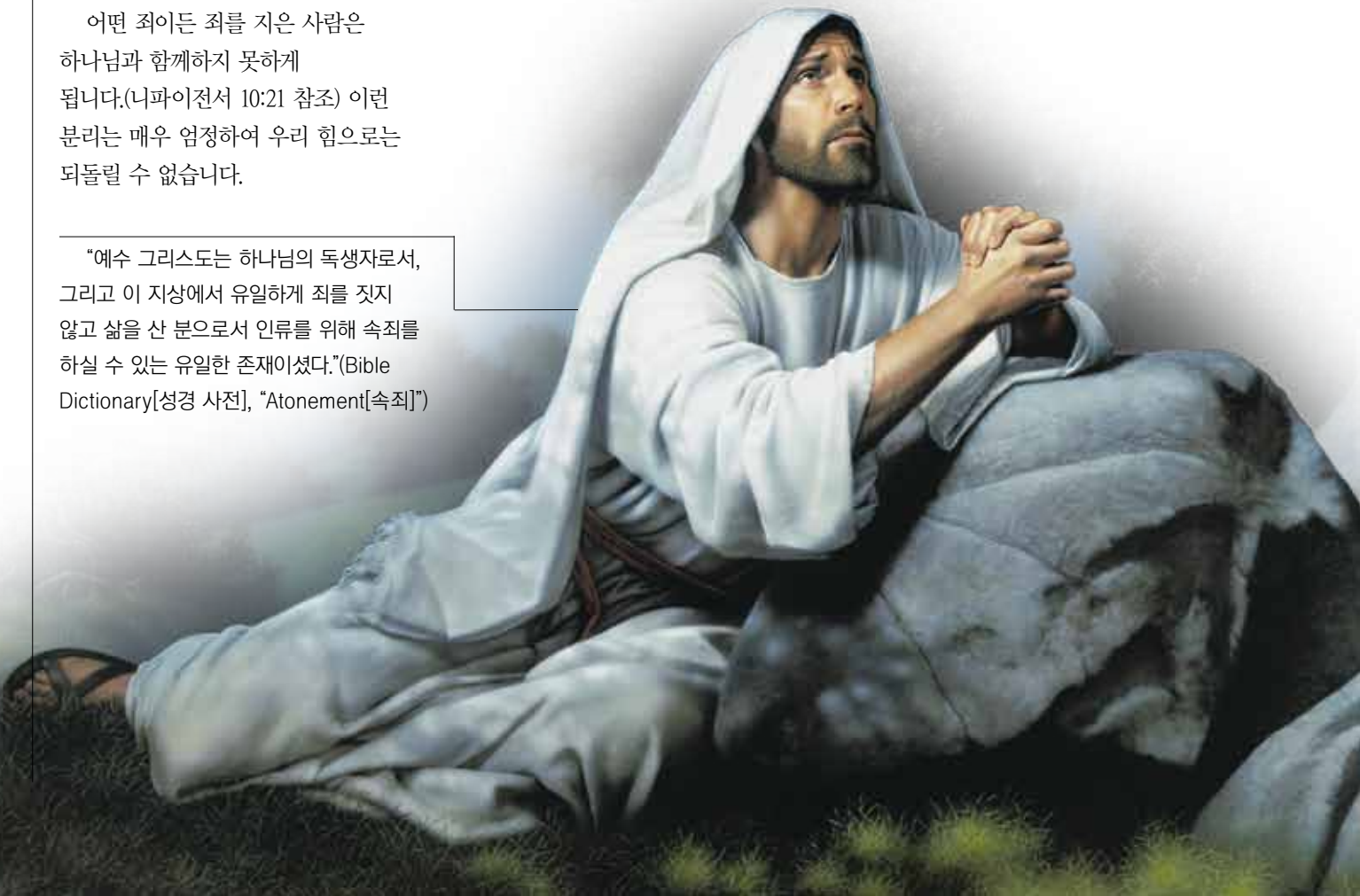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계획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교리와 성약 19:16~17)

속죄의 일환으로 예수님께서는 겻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속죄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산 분으로서 인류를 위해 속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셨다.”(Bible Dictionary[성경 사전], “Atonement[속죄]”)



또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1.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앨마서 11:42~45 참조)



2.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인 8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린다.(모사이야서 3:16; 15:24~25; 모로나이사서 8:8~12 참조)



우리 생활 속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년), 59~66쪽과 신앙에 충실함(2004년), 134~140쪽을 참조한다.



3.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는 시련을 겪는 시기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요한복음 14:27; 앨마서 7:11~12 참조)



4. 현세에서 불공평한 삶을 산 의인들은 보상을 받는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52쪽 참조)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주려 함이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지어다.”(제3니파이 9:21~22)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치유를 받으라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데이비드 엘 프레쉬네흐트
교과 과정부

회개가 낳는 축복

“죄는 신성한 율법을 고의로 어기는 범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에서 비롯된 결과를 바로잡고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오는 은사 덕분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회개와 용서에서 비롯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안전한 귀환 지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99, 101쪽.

아는 사람 중에 착하고 충실한 여성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일이 있었다. 특히 갈비뼈와 척추는 부러지기까지 했다.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그분은 허리와 목을 고정하기 위해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다. 보호대는 매우 불편해 보였지만 꼭 필요한 조치였다. 그래야 척추와 목이 나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회개도 마치 보호대와 같은 구실을 한다. 죄를 짓고 영혼에 상처를 입으면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 신성한 치료가 필요하다. 회개한다면, 구주께서 속죄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제3니파이 9:13 참조) 어떤 면에서 회개는 부러진 척추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이신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죄가 심각하다면 우리는 권한이 있는 신권 역원에게도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한 행동으로 야기되었을 어떤 손해라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됨을 의미하기에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중지하고, 옳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인생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회개 과정을 잘 마치면 치유와 안식, 행복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도로시 제이 알 화이트는 이런 글을 썼다.

눈물은 밖으로 흘러 내리지만
내면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²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단호하게, 그리고 사랑과 설득으로 회개하라고 요청하신다. 주님께서는 육체와 영으로 고통을 받으시어 우리가 회개할 때 치러야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셨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겸허하게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누가복음 15:21)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따뜻하게 맞았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가 회개할 때 반갑게 맞아 주신다.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그런즉 내가 네게 거듭 명하노니,
 회개하라.”(교리와 성약 19:16~20)

우리가 바로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치유되기를 소망한다. ■

주

1.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안전한 귀환 지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0쪽.
2. Dorothy J. R. White, “Repentance,” *Ensign*, July 1996년, 27쪽.

회개와 용서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 성신께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실 것이다.
- 하나님께서 죄책감이라는 짐을 덜어 주실 것이다.
- 성신의 영향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 33:15~16; 앨마서 12:33~34; 36:13, 17~20; 보이드 케이 패커,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벗, 1995년 11월호, 18~21쪽을 참조한다.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십이사도 정원희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 “회개하여 ……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40~42쪽) 선지자 앨마가 전한 가르침 또한 회개와 속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앨마서 42장 참조)

1.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작용하여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고통을 겪으시어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2.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도 손상을 입는다.
3.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 슬픔의 고통이 줄어든다. 또한 용서를 받아 “마음에서 죄업을 제하[고]”(앨마서 24:10) “양심의 평안”을 얻음으로써(모사이아서 4:3) 치유된다.

회개로 받은 축복에 대해 다른 사람과 간증을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본다.

깨끗하게 하는 힘 갯세마네의 죄를



브루스 알 맥쿱키(1915~198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브루스 알 맥쿱키는 1915년 7월 29일, 미국 미시건 주에서 태어났다. 1946년 10월 6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고, 1972년 10월 12일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1985년 4월 19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했다. 이 말씀은 1985년 4월 6일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이다.

저는 제가 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간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영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듯합니다.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는 창조의 미명에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이제까지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서도 가장 초월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담긴 모든 요건과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음을 믿고 순종한 모든 사람, 참되고 충실하고 세상을 이긴 모든 사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위해 고통받은 모든 사람,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대업을 행하면서 징벌 받고 채찍질당한 모든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와 같이 되고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영원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들에 관해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말씀이 경전 말씀이나 다른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미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이 참됨을 제게 증거해 주었으므로 그 말씀은 제 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마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압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이천 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 갯세마네라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그분의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 사색하고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들은 모두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성역에 참여하고, 그분이 받으신 소명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시내산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갈보리와 같이, 이 신성하고 거룩한 곳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무죄한 아들이 회개를 전제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갯세마네에서 하신 일을 완전하게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주신



유대와 산헤드린 일원을 비롯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분은 대범죄자들, 아론의 자리에 앉은 유대인과 가이사에게서 얻은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마인에게서 재판을 받고자 범죄자처럼 밧줄로 목이 묶인 채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에게 데려간 뒤, 다시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분은 힐난과 저주를 받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침을 그분 얼굴에 뱉었으며, 그들이 휘두르는 사악한 채찍 앞에 고통에 시달려 온 그분의 육신은 더욱 쇠잔해져 갔습니다.

분노로 끓어오른 그들은 갈대로 그분의 등을 실새 없이 내리쳤습니다. 가시관이 떨어지는 그분의 이마를 찌를 때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날카로운 뼈와 금속 조각을 엮어 짠 가죽 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40여 대나 맞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보리에 있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 위해 채찍질 당한 고통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과 점점 더해가는 고뇌로 쓰러지실 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쓴 잔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마시고,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신 일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나 영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고통 받으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고난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회개하는 영혼을 죄의 고통과 형벌로부터 구속했으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비가 임하도록 해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한한 죄로 고통과 고난을 받아 땅에 엎드려 떨며, 가능하면 쓴

잔을 마시지 않으려 하기까지 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고된 시련을 받고 있는 그분께 힘을 주고자 영화로운 곳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 천사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고 가장 먼저 타락한 미가엘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무한한 고뇌, 비할 데 없는 고통이 서너 시간 계속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고, 재판받고, 채찍질당하신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뒤 그분의 육신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일을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에서, 무력한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며 죽을 듯한 고뇌에 짓눌려 있는 가운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군인들은 큰 망치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손목에 쇠못을 박았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주하고 조롱할 수 있도록 높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세 시간 동안 악의에 가득 찬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세 시간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습니다. 니파이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의 신이 변민하는 듯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변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셋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무한한 고뇌와 참혹한 고통을 다시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속죄의 고뇌가 그 대가를 다 치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었을 때, 그분은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라고 말씀하시고 자진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자비로운 사망으로 평안과 위로를 받고 필멸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신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영혼을 바치심으로써, 구주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대로 자신이 뿌린 씨를 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지나간 세대의 충실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받들었던 모든 이들과, 주님께서 영적으로 낳으셔서 우리처럼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이들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약 38시간 또는 40시간 뒤에, 유대인 계산법으로는 사흘 뒤에 우리의 신성하신 주님께서는 아리마대의 무덤으로

옮겨지셨으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은 부분적으로 향유를 바른 주님의 시신을 그곳에 눕혔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직 부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아버지와 같아진 영화로운 불멸의 육신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영원한 승영을 받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삼 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게 미치어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가져오셨으며, 아담이 필멸의 몸의 아버지가 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몸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필멸의 몸과 불멸의 몸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영원한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는, 하늘보다 더 높은 그곳에 오를 수 없습니다.

속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속죄는 가장 기본이자 근본이 되는 복음 교리입니다. 그것은 계시된 모든 진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며, 인생의 시련과 위험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에녹과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믿은 대로 믿고, 그들이 안 것을 알고, 그들이 생활한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저는 속죄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는 일에 동참하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철학과 현인의 지혜를 버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탐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타락이 없었다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하며 흘리신 피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이 완전한 속죄에 관하여 저는 그 일이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압니다.

저는 구주를 증거하는 증인 중 한 명이며, 장차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 보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구원은 그분께서 속죄를 이루시며 흘리신 피를 통해 오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보다 더 잘 알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듯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

소제목 추가: 대문자, 구두점, 철자를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

음성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빈 무덤이 있던 동산이 떠오를 것입니다.

창조, 타락, 속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고, 생식도 없고, 시련도 없는 낙원과 같은 상태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창조가 타락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불멸의 상태와 낙원의 영광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필멸의 육신을 지닌 첫

번째 인간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식과 사망 같은 지상 생활이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범법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시험을 받는 상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현세적 및 영적 사망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 무덤 앞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로 남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는 타락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타락으로 필멸과 죽음이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덕분에 불멸과 영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담의

구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게 미치어 모든 사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구주를 기억한다면 그분의 권능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성 찬 기도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성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하[는]”(교리와 성약 20:77, 79)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주를 기억하는 일에는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며, 이것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빵과 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주께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 삶에 영원하고 신성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고, 그 뜻을 따른다. 둘째,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께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셋째,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항상 구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간다.

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따르십시오.

빵에 대한 성찬 축복에 따라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과 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털어낸
 다음, 구주를
 중심에 두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것을
 재배열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교리와 성약 20:77) 합니다. 이 성약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그를 기억하고”로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한복음 5:30)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영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그분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시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요한복음 8: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따르셨으니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었습시다.”(모사이야서 15:7)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역이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중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7:20~23 참조)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뒤로한 다음, 구주를 중심에 두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것을

재배열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즉, 자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과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 본분에 대해 배운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 등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삶에서 현 시점에 특히 적합한 다른 것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을 실천할 충분한 시간과 방법을 마련한다면, 교육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과 같이 여러 가지 의무와 가치 있는 일도 더불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단순히 좋은 것들 때문에 밀려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덜 가치 있는 일들은 우선순위가 그만큼 낮아지거나 아예 떨어져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셨듯이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압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그런 어려움을 잘 이해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는 후에도, 주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백성을 인도하신 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리검 [형제님], 형제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물론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의지하는 그분에 대해 아직도 어느 정도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육으로 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제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때때로 저의 관심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사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의 관심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과 지식을 얻어서,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도록 하고, 그 밖의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늘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려는 소망과 역량이 커진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필요한 분별력과 신성한 도움을 얻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하며,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행함이 네 영혼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너의 행함을 너를 위해 성별하시리로다.”(니파이후서 32:9)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과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한 부부를 화상으로 접견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런 기도에 대한 작은 예를 보았습니다. 저는 접견 장소로 가기 직전에 그 부부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는 접견할 준비를 마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접견 시간 몇 분 전에 옥스 장로님께서 홀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스 장로님은 이내 고개를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접견에 대한 마지막 준비로 방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필요할 테니 말입니다.” 옥스 장로님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성별해 줄 기도 말입니다.

아무리 “벌받는 일 없이 잘 살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잘 숨기더라도 순결하고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들리게 될 그날은 피할 수 없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2.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그리스도께 보고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정전에는 주님께서 전인류를 심판하고자 심판대에 서실 것이며(제3니파이 27:16 참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위대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로마서 14:11; 모사이야서 27:31; 교리와 성약 76:110 참조) 물론경에서 엘마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범위와 심판에 임하는 개개인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임이니, 우리가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인즉,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바위와 산들을 명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그의 면전에서 우리를 가리우게 할 수 있다면 실로 기쁠 것이라.

그러나 그럴 수는 없나니, 우리는 반드시 나아와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위엄과 주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모든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곧 그는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그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비로우시며, 그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여야 하느니라.”(엘마서 12:14~15)

구주께서 복음을 규정하셨을 때 복음의 중심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리웠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제3니파이 27:13~15)

“십자가 위에 들리웠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주께서는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고통과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해 요구될 수 있는, 공의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공의의 자리에서 계시며 공의 그 자체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한 공의이십니다. 우리의 빛과 채무증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할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에서 특히 “기쁜 소식”은 회개한다는 조건에 따라 용서라는 은사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회개가 포함된다면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교리와 성약 19:16~17)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행동이든 말이든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중에 저지르는 부정행위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도, 음흉한 생각이나 탐닉, 거짓말이나 그 어떤 것도 그분들이 빠뜨리고 못 보시거나 눈감아 주시거나 또는 그분들에게서 사라지거나 잊혀져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벌받는 일 없이 잘 살더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잘 숨기더라도 순결하고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들리게 될 그날은 피할 수 없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저로서는 여러 상황에서 회개를 하거나 아예 죄를 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집을 파는 일과 관련된 문서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집을 살 사람에게서 제가 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 돈을 갖는 것이 저의 권리이므로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주님 앞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합법적 권리가 있었다고 설명하려 애쓰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제 잘못에 대해서는 자비를 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러한 설명이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갖는 것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면 제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리라는 점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애초에 계약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거래에 대해 회개할 일이 없다는 점이 저에게는 돈 얼마를 얻는 것보다 더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한때 어떤 면에서 제멋대로인 적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제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약간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털어놓지 않았고, 제가 그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인생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지만 영은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은 죄이니 고백해야 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즉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사과를 했더라면 당혹감과 후회는 덜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저는 잊었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은 제게 흥미로우면서도 중대한 일입니다. 죄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서”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놀라운 점은 구주께서 베푸신 속죄 은혜 덕분에 우리 힘으로 공의의 요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심판대에서는 아무것도 간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순종과 친절함, 선한 행위는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축복 또한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과 실망과
슬픔을 겪겠지만
변호자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3.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얻기 위해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이 회복된 초기 시절, 예수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권고와 위안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물문경을 번역하고 있었고, 그때는 신권을 받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조셉은 23세였고, 올리버는 22세였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박해와 여러 가지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29년 4월, 주님께서서는 두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보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의 길을 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일을 진지하게 수행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아멘.”(교리와 성약 6:34~37)

무슨 생각을 하든지 구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그를 항상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조셉과 올리버에게도 속죄를 통해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며(마태복음 28:18 참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조셉과 올리버가 계시로 그러한 위안을 받기에 앞서 선지자 조셉은 통렬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의 평판과 압력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1828년 6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조셉은 마틴 해리스가 뉴욕 주 팔마이러에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물몬경 원고 중 첫 116쪽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틴 해리스가 약속과는 달리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조셉은 역마차를 타고 뉴욕 주 맨체스터 군구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조셉은 즉시 마틴 해리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조셉을 찾아온 마틴 해리스는 그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시인했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 모든 것을 잃었구나. 모든 것을 잃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죄를 짓고 말았구나. 간구해서는 안 될 것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한 것은 나야. ……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합당치 않다는 꾸짖음을 들어 마땅하구나.”

그 다음날 선지자 조셉은 하모니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 가능하다면 그분의 손에서 자비를 얻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힘껏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²

주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한 조셉을 질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셉이라, 너는 주의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도다. 그러나 범법으로 말미암아, 만일 네가 깨어 살피지 아니하면 너는 타락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교리와 성약 3:9~10)

“한동안 주님께서는 조셉에게서 우림과 둠뎀을 포함하여 판들을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곧 조셉에게 되돌려주셨습니다. ‘천사는 우림과 둠뎀을 돌려주면서 기뻐했다.’라고 선지자 조셉은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충실함과 겸손함에 대해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참회하며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번역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 내 본분을 매우 잘 수행한 점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했다.’ 조셉은 자신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감미로운 느낌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무장되었습니다.”³

이 경험을 한 후에 선지자 조셉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이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 후 조셉의 삶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자비에 의지하여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조셉은 미주리 주 리버티에 투옥되어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는 동안 그 깨달음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지극히 큰 배도 폭풍이 일 때에는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진로를 유지함으로써 심히 큰 도움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리와 성약 123:16~17)

간단히 말해 “그를 항상 기억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과 실망과 슬픔을 겪었지만 변호자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0:24; 98:3 참조)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러한 신앙을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⁴ 항상 구주를 기억한다면 그분의 권능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여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기를](교리와 성약 20:77) 기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에 대해 증거합니다.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실재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증거하며, 그 사랑이 표현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

2009년 1월 27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default.aspx를 방문하면 이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다.

주

1. Brigham Young, “Discourse,” *Deseret News*, Sept. 10, 1856, 212.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69, 71쪽 참조

3. *Teachings of Joseph Smith*, 71쪽

4. 제프리 알 홀랜드,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굳세고 용감하게 서 계십니다,” 성도의 빛, 1995년 6월호 특별 부록, 6쪽.

레베카 스웨인 윌리엄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초기 개종자는 교회에 적대적인 가족들이 있었지만 신앙을 굳게 지키고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재니스 린 존슨

18 34년 6월, 아버지에게 의절을 당할 처지에 놓인 한 젊은 어머니는 담대하면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회복에 대한 확신을 편지에 담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알았지만, 레베카 스웨인 윌리엄스는 곧 붙어 닦칠 결과에도 굳세게 버텼다. 레베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기술한 바와 같이 몰몬경과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아버지 아이작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아울러 세 증인이 “공공 모임에서,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판들을 들고 내려와 자신들 앞에 놓는 모습을 보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도 전했다.¹

레베카의 간증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 말씀에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통해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교회를 반대하고 한때 남편인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교회에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레베카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지칠 줄 모르고 물러날 줄 모르는 레베카는 오늘날 크나큰 인생 역경이 밀려오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우리를 경멸할 때조차도 어떻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남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모범이 된다.

교회로 개종하다

레베카 스웨인은 179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10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² 레베카가 아홉 살 되던 무렵에 가족들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 부근에 있는 나이아가라로 이사했다. 이 가족은 1812년 전쟁에서 나이아가라 요새가 공격을 받을 때 총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만큼 요새와 가까운 곳에 살았다. 어린 소녀 시절에도 레베카는 담대한 아이였다. 한번은 숲 속을 홀로 거닐다가 오솔길에서 곰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손에 양산을 쥐고 있던 레베카는 곰의 코 앞에서 양산을 몇 차례 펼쳤다 접었다를 되풀이했고, 곰은

달아나버렸다.³

열일곱 살 때, 레베카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언니를 방문하기 위해 온타리오호를 건넜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녀는 짙은 눈에 키가 큰 도선사(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옮김)인 프레드릭 그레이저 윌리엄스를 만났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친절은 금세 사랑으로 발전했고, 1815년 후반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윌리엄스 가족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방대한 서부 부유지 근처로 이사를 했고, 마침내 1828년에 커틀랜드에 터를 잡았다.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남편 프레드릭은 의술로 매우 유명해졌고, 레베카는 그 과정에서 남편을 돕는 방법을 익혔다. 그들은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1830년 가을, 커틀랜드에 처음으로 몰몬 선교사들이 도착했다. 레베카는 그들이 하는 말을 관심 있게 들었으며, 선교사들이 주최하는 모든 모임에 참석했고, 아이들까지 데려갔다. 프레드릭은 진료 시간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모임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배웠지만, 프레드릭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덜 했다. 반면에 레베카는 복음이 참됨을 굳게 믿었다.

훗날 가족 전기작가는 레베카를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다고 묘사했다. 레베카는 복음 성약에 온전히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일 먼저 깨달았다.”⁴

그녀는 1830년 10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여전히 흔들렸다. 종종 그는 교회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결국은 거룩하고도 새로운 경전인 몰몬경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성령이 역사하여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고, 프레드릭은 레베카가 보인 모범을 따라 침례를 받았다.

헌신적인 봉사

교회는 금세 프레드릭과 레베카의 삶에서 중심이 되었다. 가족들은 그 영향을 피부로 느꼈다. 프레드릭은 침례와 확인을 받은 뒤 곧바로 장로로 성임되었다. 바로 그 이튿날,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선교 사업을 위해 몇 주 안에 떠나라는 지명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3주에 걸쳐서 선교 사업을 하리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미주리 주를 열 달 동안 여행하게 되었다. 이 여행을 시작으로 레베카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프레드릭은 선교 사업과 제일회장단 부름을 수행하느라 자주 집을 비웠다. 많은 초기 몰몬 여성들처럼 레베카는 남편 도움 없이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며 수개월을 지냈다.

일이 힘들었지만 레베카는 계속 충실했고 기꺼이 봉사했다. 조셉 스미스

가족이 처음 커틀랜드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한동안 윌리엄스 가족의 집에 머물렀다. 레베카는 어려운 시절에 그들을 보살피며 선지자와 그 가족에게 충실함을 보여 주었다. 한번은 폭도들이 몰려와 집을 에워싸고 조셉을 잡아내려 한 일이 있었다. 레베카는 자신이 쓰는 보닛(턱밑에서 끈을 매게 되어 있는 모자-웁긴이)과 망토로 조셉을 변장시켰다. 조셉은 집을 나와 군중 속을 뚫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

1832년 3월, 폭도들이 오하이오 주 하이럼에 있는 존 존슨 농장으로 쳐들어와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을 잔인하게 공격했을 때, 레베카는 또 다시 정성을 다해 선지자를 도왔다. 폭도들은 시드니를 때려 실신시키고 조셉의 목구멍에 독을 부어 넣으려 한 뒤, 선지자에게 타르를 붓고 깃털을 붙였다. 남편을 발견한 에머 스미스는 몸에 묻은 타르를 피로 착각하여 정신을 잃고 말았다.⁵ 레베카와 프레드릭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조셉의 몸에서 타르를 벗겨내고, 스미스 집 아이들을 돌보며 밤을 지냈다. 그 보살핌 덕분에 조셉은 이튿날 아침에 기운을 차리고 설교에 나설 수 있었다.

자신 있게 복음을 나누며

레베카가 가장 간절히 바란 소원 중 하나는 자신의 가족, 특히 아버지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이라는 기쁜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 리하이처럼 레베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니파이전서 8:12 참조) 그런 꿈이 있었기에 레베카는 자신이 개종한 사실과, 간증과, 교회 회원으로서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는 이야기를 간절하게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냈다.

하지만 레베카가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했다. 아버지는 짙은 답장에서 레베카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레베카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 역사가가 서술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답장에 “물론 교리가 참되다는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요.”라는 대답과 함께 자신의 굳센 간증을 더해 보냈다.⁶ 레베카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이 편지는 그녀가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버지는 딸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의절할 것이며, 모든 연락을 끊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렇지만 레베카는 굽히지 않았고 계속 복음을 나누고자 애썼다. 1834년, 레베카는 아버지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편지이며, 이 글에는 레베카의 깊은 신앙심이 드러난다. 아울러 아버지가 몰몬교에 관해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느끼는 아픔을 표현했다.

레베카의 아버지는 특히 몰몬경과 세 증인의 간증과 관련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으며, 이를 근거로 레베카를 말리려 했다.

레베카는 이렇게 썼다. “몰몬경과 관련해 아버지의 심경이 그토록 어지럽다고 하시니 가슴이 아픕니다.” 몰몬경 구절과 조셉 스미스가 받은 새로운 계시를 인용하며 레베카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또한 몰몬경에는 이 책을 증거할 세 증인이 선택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 증거로 레베카는 고대 선지자 이더가 한 말을 인용했다.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책이 참됨이]

확립되리니”(이더서 5:4)⁷

레베카는 곧이어 세 증인인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 올리버 카우드리를 본 경험과 그들이 한 천사와 금판을 본 것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의 간증과 성품을 변호하고 나서 레베카는 아버지에게 좀 더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요청했다. 레베카는 그 이유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우리처럼 이 사업과 관련된 배경을 알게 되신다면 두 분도 믿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⁸

몰몬경 끝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인용하며 레베카는 “진리로 가는 길에서 [그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그분께 여쭙어 보라고 부탁했다. 또한 레베카는 “예수님 시대와 같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어 가족들을 더 돕고자 했다.⁹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모든 것을 거부했다.

레베카와 특히 가까웠던 오빠 존에게 보낸 편지들은 뜯지도 않은 상태로 돌아왔다. 돌아온 편지들 중 하나에는 뒷면에 존이 쓴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서 네 편지를 읽지도 말고 답장도 쓰지 말라고 하셨단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빌며 이만 안녕. 네 오빠, 존.”¹⁰

하지만 큰 언니인 사라 스웨인 클라크에게 펼친 레베카의 선교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사라는 1832년 미시간에서 교회에 가입했다. 사라의 딸들도 교회에 들어와 평생 충실하게 생활했다.



끝까지 충실하여

아버지의 그러한 선택으로 아픔과 고통을 느꼈지만, 레베카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제 마음은 가족들 때문에 몹시 슬픕니다. ……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사업에 관한 아버지의 노여움이 가라앉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확신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¹¹

레베카는 아버지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남편의 신앙 문제와도 맞서야 했다. 1837년과 1838년, 제일회장단의 일원이던 남편 프레드릭은 교회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과 거둬 충돌했다. 그는 한때 교회를 떠났고, 파문까지 당했다. 하지만 오래잖아 프레드릭은 스스로를 낮추고 다시 교회에 들어왔으며 온전한 회원으로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레베카의 심정을 담은 기록은 없지만 그녀는 성도들에게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것이다.

프레드릭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문이 뉴욕에 있는 레베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자 아버지 아이작은 레베카도 신앙을 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레베카는 편지 한 통을 보내어 그녀가 변함 없이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딸의 답장을 읽은 아이작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늬우치는 기미가 전혀 없군.”¹²

레베카는 끝까지 굳건하게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교회를 옹호했다. 아버지보다 교회를 선택했기에 희생이 뒤따랐지만 레베카는 계속 아버지를 존경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했다. 레베카가 1834년에 쓴 편지는 이렇게 끝난다.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 가르침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¹³

레베카의 아버지는 183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레베카는 남편마저 잃었다. 이와 같은 아픈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신앙과

용기를 잃지 않았다. 성도들이 유타로 가기 위해 서부로 여행할 때 레베카는 아들 에스라의 가족과 함께 여행했으며, 직접 마차를 몰았다. 나중에 레베카는 밀 크리크에 있는 한 농장을 맡아 운영했다.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이 완공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형편이 되는 대로 기증하도록 요청했다. 그때 레베카는 은 손가락 세트를 내놓아 성찬대에 쓸 성찬기를 만드는 데 쓰게 했다. 레베카는 마지막으로, 1860년에 브리검 영 회장으로부터 가족과 함께 유타 주에서도 외딴 곳인 캐시 밸리에 정착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레베카는 당시 몹시 쇠약했지만 이번에도 기꺼이 손수 마차를 끌고 캐시 밸리로 이주했다.

레베카는 1861년 9월 25일, 유타 주 스미스필드에서 운명했다. 그녀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믿음과 경험에 충신했다. 레베카는 끝까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모사이야서 5:15)

■ 철자와 구두점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

주

1. Rebecca Swain Williams to Isaac Fischer Swain, June 4, 183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 전기에 관한 정보: Nancy Clement Williams, *Meet Dr. Frederick Granger Williams ... and His Wife Rebecca Swain Williams: Read Their True Story in the First Introduction—after 100 Years(1951)*; 및 Frederick G. Williams, “Frederick Granger William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BYU Studies*, vol. 12, no. 3 (1972): 243–61.
3. Williams, *Meet Dr. Frederick Granger Williams*, 5.
4. Williams, *Meet Dr. Frederick Granger Williams*, 55.
5. *History of the Church*, 1:263.
6. Williams, *Meet Dr. Frederick Granger Williams*, 63.
7. 또한 Rebecca Williams letter of June 4, 1834 참조.
8. Rebecca Williams letter of June 4, 1834.
9. Rebecca Williams letter of June 4, 1834.
10. Williams, *Meet Dr. Frederick Granger Williams*, 63.
11. Rebecca Williams letter of June 4, 1834.
12. George Swain letter, Mar. 17, 1839, typescript,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3. Rebecca Williams letter of June 4, 1834.



마셜 제도에서 찾은 올바른 항해술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고대 배사람들은 해와 달이나 별의 위치를 보고 바다를 항해했다. 밤이면 선원들은 예리한 눈으로 북극성을 응시했다. 위치가 변하지 않는 북극성은 선원들에게 하늘에 내린 닳이 되어 목적지로 가는 바른 길로 안내한다.

그러나 태평양 마셜 제도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또 다른 기술을 발견했다. 그곳은 환초(고리 모양으로 배열된 산호초, 안쪽은 얇은 바다를 이루고 바깥쪽은 큰 바다와 닿아 있다. - 옹기)와 섬들 사이로 흐르는 파도와 바다 물결이 일정한 주기로 움직인다. 숙련된 선원은 복잡하게 흐르는 바다 물결을 따라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마치 일방 통행 도로를 달리듯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바다 물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흐르는지 아는 사람은 여행자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한다.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을 인도하는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을 보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의식은 바다 물결처럼 우리를 하늘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 항해사와 협력하여 봉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삶이라는 항해에서 바위투성이 여울과 폭풍 속을 지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운 세 마셜 제도 회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의로운 여성이 미친 영향

히로보 오베케탕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방그레 웃는다. 히로보와 아내 린다는 네 자녀와 자매 선교사와 함께한 가정의 밤을 이제 막 마쳤다. 가족은 마셜 제도 수도인 마주로의 전통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조리한 생선을



누구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험난한
바위투성이 여울을 지날 때면 하늘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길잡이를 해 주는 충실한
회원에게 도움을 받는 일이 있다.

선교사에게 저녁 식사로
대접했다. 히로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복음, 가족, 특히 아내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때는 2009년 6월이었다. 마셜 제도 마주로 스테이크가
만들어지기 전날, 히로보는 마주로 스테이크의 첫 집행 서기로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인 알링톤 티본 회장은
히로보를 섬에서 충실한 회원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아주
강건한 형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히로보는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선뜻 말한다. 히로보는 자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아내 덕이 크다고 아내에게 그 공을 돌렸다.
히로보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여덟 살 때 침례를 받았지만
열여섯 살이 되어서는 교회 활동에 시들해졌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히로보는 결혼하지 않고서 린다와
동거를 시작했다. 린다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2000년에
린다는 히로보가 어려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
교회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자매 선교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히로보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2년에 걸쳐 공부를
하고 나서 린다는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어요. 일단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결혼이었지만 전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의 유혹에
젖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죠. 정말이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자녀를 키웠다.
린다는 해마다 히로보에게 자신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몇 해가

지나면서 딸 중에 두 아이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히로보는
침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6년에 아홉 살 난 아들 타카오가 고열과
발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300여 명에 이르는 마주로 지방부
회원들은 이 가족에게 힘을 주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려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지요.” 하고 히로보는 말한다.



히로보는 왜 아내가 자신 때문에 침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심지어 그는 교회 회원이지 않은가?
“린다는 계속 굳건해졌어요. 정말 제게 큰 영감을 주었지요.”
히로보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았어요. ‘인생 절반을 살아왔지만



프랭크도 것처럼 모범을 보였다.

선교사를 만난 후 프랭크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시작했다. 곧 프랭크는 토론을 시작했지만, 가족 중 아무도 교회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 “선교사가 오는 걸 보면 저는 물론이고 여동생도 남동생도 모두 자리를 피했어요.” 하고 패트리샤는 말했다.

프랭크는 2007년 7월, 벨슨 블릭 선교 회장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패트리샤와 그녀의 형제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패트리샤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변화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닿았다면 제 마음에도 와 닿을 수 있을 것이고 제 인생도 변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매 선교사와 토론을 하기로 했죠. 자매 선교사는 물론경과 성경을 공부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남동생과 전에 다투었는데,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경건 구절을 읽었지요.”(제3니파이 13:14~15 참조)

패트리샤는 깨끗하고 평안한 삶을 시작하려면 남동생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삶은 어떠했는가? 지금처럼 계속 살겠는가? 이제 나머지 인생 절반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살 기회가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러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대해 생각했죠.”

히로보는 선교사와 공부를 시작하고 교리에 대해 다시 배웠다. 마셜 제도 마주로 선교부 벨슨 블릭 회장은 다른 회원들과 그때 당시 지방부 회장이었던 알링톤 티본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히로보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다. 마침내 히로보는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곧 바로 성찬식뿐 아니라 주일학교와 신권 모임까지 참석했다. 비로소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이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었죠. ‘바로 이거야.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그 한마디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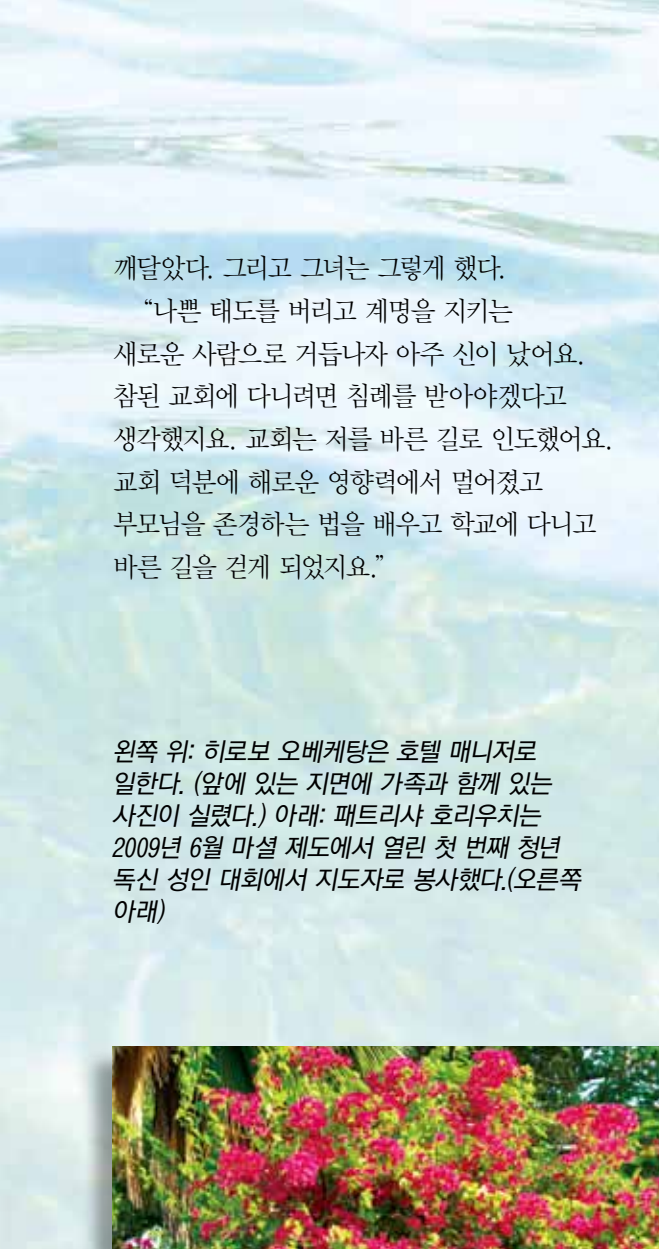
히로보와 린다는 2008년 8월 30일에 결혼했다. 그리고 히로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론 신권을 받고 아내에게 침례를 주었다. 두 달 후에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지방부 집행서기로 부름을 받았다.

“저에게 침례를 받다니, 아내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이나 걸렸어요. 린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로보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웃음지었다.

모범을 보인 의로운 아버지

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들은 마치 뱃사람처럼 우리가 가까이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향해갈 수 있도록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준다. 대부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며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낸다. 패트리샤 호리우치의 아버지인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나쁜 태도를 버리고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자 아주 신이 났어요. 참된 교회에 다니려면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교회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교회 덕분에 해로운 영향력에서 멀어졌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학교에 다니고 바른 길을 걷게 되었지요.”

왼쪽 위: 히로보 오베케당은 호텔 매니저로 일한다. (앞에 있는 지면에 가족과 함께 있는 사진이 실렸다.) 아래: 파트리샤 호리우치는 2009년 6월 마셜 제도에서 열린 첫 번째 청년 독신 성인 대회에서 지도자로 봉사했다.(오른쪽 아래)



일반적인 시련

마셜 제도 회원들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또한 거리상으로 다른 후기 성도 회원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모든 회원이 겪는 시련들과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한다.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지도자인 게리 재키우스(오른쪽)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이젠 선지자도, 경전도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하고 말해요. 어떤 회원들은 그다지 경전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믿음을 뒤흔드는 말을 하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에서 물러서고 말죠.”



게리에게 해결책은 간단하기만 하다. “선교사는 몰몬경과 회복, 조셉 스미스가 참된지 알려면 기도를 해 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밤,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영이 느껴졌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옳았구나 싶었죠. 어린 개종자인 저는 몰몬경을 읽으면서 간증이 강화되었어요.” 게리는 침례 받은 후부터 선교 사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몰몬경을 읽고 경전과 선지자 말씀을 공부하면서 간증을 키웠다.”라고 말한다.

게리와 함께 마셜 제도에서 교회 번역사로 일하는 어니스트 메아(오른쪽)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한다. 어니스트는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건전한 활동을 하면서 협착하고 좁은 길을 고수한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빼고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교회에서 농구를 했어요.” 하고 어니스트는 말했다.



젠록 와드의 마이클 이오네(오른쪽)는 2006년에 교회에 들어오면서 큰 대가를 치렀다.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앙과 확신으로 결국 마이클은 침례를 받았다.

불과 일 년 후, 마이클은 마셜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얼마 전, 마이클의 가족은 교회에 관심을 보이며 선교사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이로운 남성이 미친 영향

리디아 카미나가는 앞서 소개한 히로보 오베케탕처럼 교회에서 태어났지만 십대를 지나면서 저활동 회원이 되었다. 리디아 역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독특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다.

리디아와 남편인 카미나가는 모두 교회에서 성장했다. 카미나가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믿음은 한결같았어요.”

그러나 리디아의 삶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리디아는 7학년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학교에서 유일한 몰몬이었는데, 늘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던 거죠.”

리디아의 부모님은 리디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면 복음대로 살도록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 그녀를 가족이 있는 미국 유타 프로보로 보냈다. 물론 그때 배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당시에 리디아는 교회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리디아는 2002년 1월에 마셜 제도로 돌아왔다. 카미나가가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지 막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두 사람은 곧 서로 알게 되었다. 리디아가 교회 표준대로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카미나가는 리디아의 조카인 케리 제키우스를

리디아 카미나가는 “저는 회개에 관한 강한 간증이 있어요.” 하고 말한다. 사진에서는 남편 카미나가와 딸 웰리사와 함께 있다.



만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리디아의 집을 찾아왔다.

결국, 카미나가는 리디아와 건전하고 순수한 데이트를 하며 교제하고 싶다는 말을 리디아의 부모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리디아의 부모는 처음에는 카미나가를 만류했다. 카미나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분들께 ‘리디아가 변화할 기회는 아직도 있어요.’ 하고 말하자 방 안 분위기가 바뀌었지요. 아버지께서는 ‘내 딸이 교회로 돌아오기만을 늘 바랐다네. 이제 자네가 도와주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리디아는 카미나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카미나가는 말끔한 귀환 선교사였고 리디아는 활동 회원인



적이 없었다.

“카미나가는 제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없었던 리디아는 카미나가와 교제하기로 선택했다. “카미나가는 저를 집에 바래다 주었지요. 저는 그의 여자친구로서 표준을 올바로 세워야 했어요. 카미나가는 제가 침례 때 맺은 성약을 되돌아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카미나가 덕분에 경전 읽거나 가정의 밤처럼 있고 있었던 많은 일들도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우리는 함께 봉사 활동도 하고 물몬경도 읽고 노변의 모임에도 갔어요. 카미나가는 삶을 다르게 사는 법을 보여 주었어요. 교회에 간다는 건 성찬식뿐 아니라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에도 참석하는 것을 의미했지요.

함께 건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제를 하면서 리디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간증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디아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회개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회개에 관한 강한 간증이 있어요. 여러 면에서 우리의 만남은 서로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자 제가 다시 활동 회원이 되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고 리디아는 말했다.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란 그런 거죠.” 하고 카미나가가 덧붙였다.

리디아와 카미나가는 2002년 11월 28일에 결혼했다. 일 년 후에는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함께 하와이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녔다. 현재는 마셜 제도에서 세 자녀와 살고 있다. 리디아는 와드에서 청남 청년 주일학교 교사로, 카미나가는 청남 회장으로 봉사한다.

히로보와 패트리샤, 리디아가 나눈 간증처럼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하여 주님의 축복을 구하면 많은 일이 가능해진다. 구주를 따르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마치 고대 뱃사람들이 여행자들을 집으로 인도했듯이 말이다. ■

마셜 제도에 세워진 첫 번째 스테이크

수년간 마셜 제도 교회 회원들은 그곳에 스테이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2009년 6월 14일은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스테이크를 조직했던 칠십인인 데이비드 에스 벅스터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회원 수가 놀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스테이크 조직은 교회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원들은 숏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마셜 제도 스테이크 알링톤 티본 회장(위)은 지방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회원들에게 스테이크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티본 회장은 회원들에게 말라기 3장과 제3니파이 24장에 나오는 십일조의 축복을 가르치도록 지방부 지도자들을 교육했다. 지도자들은 청소년과 독신 성인들에게 물몬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교박 열두 시간 동안 물몬경을 읽는 모임도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

티본 회장은 “성전에서 인봉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원들이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엔다우먼트는 회원들이 많은 난관을 이겨내도록 돕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할 거예요.” 하고 그는 설명했다.

티본 회장의 지도력 아래, 마셜 제도 회원들은 통가와 하와이에 있는 두 성전을 방문했다. 방문 때마다 상당한 희생이 필요했다. 그러나 티본 회장의 아내인 안젤라 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 여행으로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에 더욱 헌신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우리는 이곳 마주로의 영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지요.” 하며 티본 회장이 말했다.



난 교회에 관심이 없어

선 교사들이 우리 아들들을 가르쳐도 되냐며 아내가 물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가 이미 회원이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선교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자 나는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버리고는 했다. 친구는 다른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다. 친구를 찾아갈 때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말하고 싶어했다.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종교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마침내 나는 친구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선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나는 친구와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이 집에 올 무렵이었다. 그러나 나는 밖으로 나가는 대신 옆방에 머물기로 했다. 선교사들이 아들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듣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 잘 듣기 위해 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내가 더 배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선교사들과 이야기했고 따로 선교사 토론을 받기로 결심했다. 아내가 토론을 할 때 항상 함께하긴 했지만 내가 선교사와 토론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선 교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자 나는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버리고는 했다.

없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들들을 가르치러 일주일에 두 번씩 집에 올 때면 나는 친구 집에 가곤 했다. 그런 다음, 다른 날 선교사들이 나를 가르쳤다.

어느 날, 친구가 교회에 대해 무언가 나쁜 말을 했을 때 나는 교회를 옹호했다. 마셜 제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교회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고, 후기 성도가 믿는 것에 대해 몇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가 교회에 대해 다른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또 다시 교회를 옹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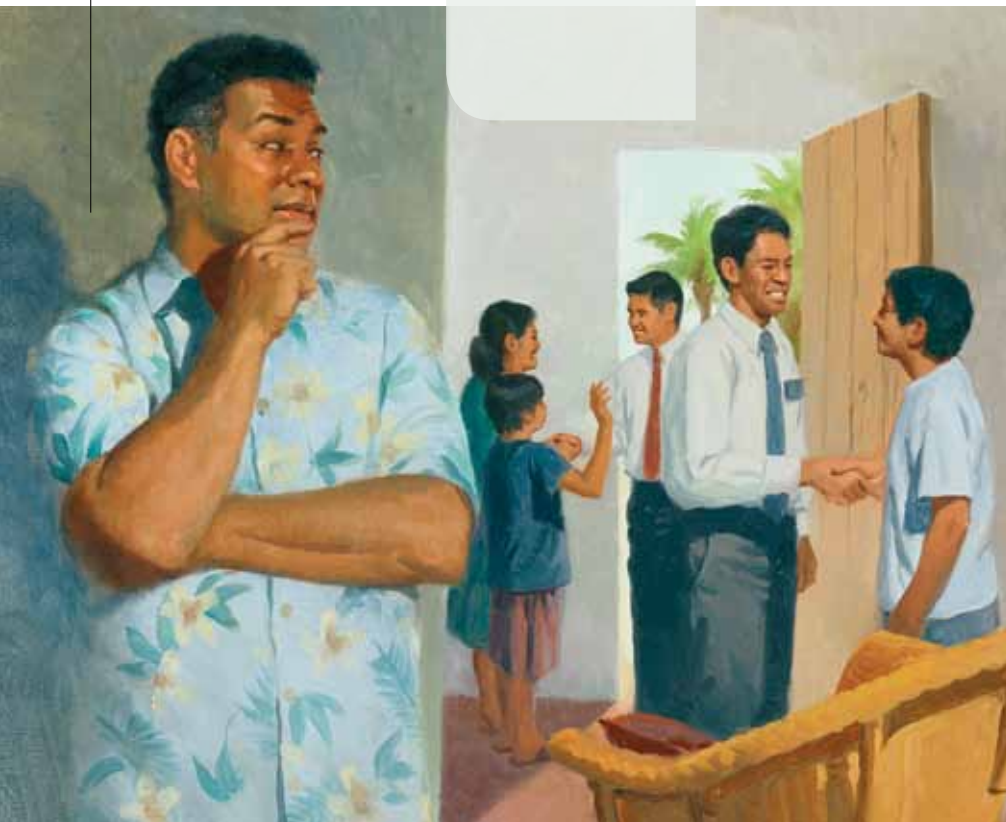
그렇게 일곱 달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선교사들이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참됨을 성신이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도 복음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지만 나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7년에 침례 받고 나서 나는 무척 행복했다. 우리는 하와이에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 저축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나와 아내와 세 자녀는 2008년 12월에 인봉을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되면서 내 삶은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나는 부업으로 하는 레스토랑 공연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하고 옷이 담배 연기로 찌들었기 때문이다. 부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나는 교회가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안다. 영을 느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

타넨토아 섹스톤, 마셜 제도



조랑말 십자수

나에게는 내가 약 일 년에 걸쳐 수놓은 두 마리의 얼룩무늬 조랑말 십자수 그림이 있다. 십자수를 거의 완성할 무렵, 나는 조랑말 한 마리에 색갈을 잘못 입힌 것을 발견했다. 말가죽으로 쓰일 수 있는 색갈이었지만 화포에서는 그 색이 인접한 색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수를 놓느라고 오랜 시간을 공들였는데 이제 색갈이 잘못된 부분의 수를 다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며 스레기통을 열고 그림을 던져 넣었다.

나는 바느질용품을 놓아 둔 탁자에 앉아 내 예쁜 조랑말 그림을 잃은 일을 한탄하며 다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토록 공들인 작품을 그냥 단념할 수가 없었다. 스레기통을 열고 천을 다시 꺼냈다. 나는 문제가 되는 부분 뒷면에서 매듭을 찾아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그런 다음 그림을 뒤집어 실을 뽑기 시작했다.

실이 쉽게 제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내가 수놓은 것인데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한번에 한 뼘씩 실을 잘라내야 하는 곳도 있었다. 아들은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그 고생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래 봤자 십자수 한 점인데 말이다.

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는 회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내가 범한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했다. 진정한 회개는 강렬한 소망과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러한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

말을 다시 수놓으며, 나는 회개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내 삶에 남은 죄의 얼룩이 지워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 집에 걸린 “회개 조랑말”은 은은하게, 그러나 생생히 나에게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 것과, 회개를 통해 속죄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

샌드라 제닝스, 미국 뉴멕시코 주

그 그림을 수놓느라고 오랜 시간을 공들였는데 이제 색갈이 잘못된 부분의 수를 다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이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 중해를 여행하는 동안 나는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부지런히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스페인 세비아에서는 후기 성도 집회소를 찾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받고, 전화번호부와 도시 지도 등을 동원했다. 나는 교회 주소와 이름을 스페인어로 적어 놓았다. 토요일 저녁에 나는 모임 시작 시간을 알고자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오전 10시까지 그곳에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일요일 아침 9시 30분, 교회로 떠나기 전에 나는 집회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지도를 따라가며 미로 같은 좁은 길을 누비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은 정말 산뜻했다. 지저귀는 새들로 가득 찬 새 시장과 식당들을 지났다.

미리 알아 둔 주소에 이르렀지만, 교회와 조금이라도 닮은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길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걸어가 보았지만 허사였다. 당황스럽고 불안했으며 거의 10시가 다 되고 말았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당신께서 교회에 가라고 명하셔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한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나왔다. 그 사람은 교회 회원처럼 보였고 그를 불러 세워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금 엉터리였지만, 그에게 내가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을 스페인어로 겨우 건넸다. 그가 뭐라고 말했지만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한 남자가 모퉁이를 돌아나왔다. 그 사람은 교회 회원처럼 보였고 그를 불러 세워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서류가방을 열어 보였다. 경전처럼 보이는 가죽 양장으로 된 책 두 권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 “La Iglesia de Jesucristo”(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쓴 종이를 건넸다. 그는 씩 웃으며 등 뒤로 내가 왔던 길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까지 같이 걸어갔다. 건물은 단 몇 분 거리에 떨어진 다른 주소에서 있었다. 그 건물이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었다. 건물은 길가에서 쭉 들어간 자그마한 마당 안에 있었으며 커다란 출입구로 가려 있었다.

집회소에 도착하고 얼마 후 나는 나를 도와준 남자가 다름 아닌 와드 감독님이며, 모임은 10시 30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유 있게 도착한 것이다.

와드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간증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선교사가 내 말씀을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가운데 나는 간증을 나누었고, 내가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주셨는지 설명했다. 곧이어 감독님이 간증하셨는데, 그날 아침에는 자동차를 평소보다 멀리 주차해야 했으며, 그래서 여느 때보다 늦었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은 나를 본 순간 교회 회원이라는 느낌을 받았기에 도움을 주고자 걸음을 멈추셨다고 했다. 곧이어 감독님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회원들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세비아 풍경은 기억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찾던 기억은 생생하다. 내게 그 추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해 준다. 아울러 “협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는]”(로마서 8:28) 모든 것을 내가 찾지만 한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

줄리 이스마일,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그분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덜고

신 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나는 아픈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는 미숙아들도 있다. 어느 날 밤, 나는 17주 일찍 태어나 0.5킬로그램이 간신히 넘는 남자 아기를 맡게 되었다. 아기의 손은 몹시 작았고, 다리는 대략 내 손가락 두께만 했으며 발은 내 엄지손가락만 했다. 호흡 곤란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기가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생아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병동 전체에 조용한 침묵이 감돈다. 모든 사람, 특히 아기를 돌보는 간호사는 잔뜩 긴장하는데 오늘 밤 그 긴장은 내 차지였다. 아기의 부모는 거의 하루 종일 병상을 지켰으나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산모는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취하러 산모실로 돌아간 터였다.

아기가 있는 개인 병실에 있는 인큐베이터, 감시 장치, 인공호흡기, 정맥 펌프가 아기의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었다. 아기는 상태가 심각했고, 극도로 세심한 간호가 필요했으므로, 나는 그날 밤 온전히 그 아기만 돌보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아기 곁을 밤새 지키며 약을 투여하고 관찰하고 치료하고 검사를 해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밤을 보내며 나는 만약 내가 이 아기의 엄마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려 애썼다.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나는 살며시 아기의 얼굴을 닦아 내고 작은 손과 발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부드러운 새 깔개에 옮겨 눕혔다. 내 작은 환자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아기의 엄마라면 무엇을 해 주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이 소중한 순수한 어린 영혼은 곧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아기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들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무서워할 때면 나는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 눈물을 삼키며, 나는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

간호사로서 나는 튜브와 혈액을 확인하고 아기 가슴이 오르내리는 수를 세고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면에 뜨는 숫자를 관찰했다. 후기 성도로서 나는 해의 왕국의 영을 보았으며 구원의 계획에 경탄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기는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 급기야 폐에 피가 차는 상태에 이르렀다.

아침이

눈 물을 삼키며 나는 아기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주었다.

밝았을 때 내 작은 환자는 가만히 휘장 저편으로 옮겨졌다. 엄마의 품을 떠나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은 것이다.”(엘마서 40:11)

그날 밤 나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 인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관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놀랍기조차 했다. 또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친절하고 온화하며, 더 많이 용서하고, 더 온정이 넘치는, 더욱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느꼈다. ■

바바라 윈터, 미국 애리조나 주



성약은 영원하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으로 결심한
것이라면 세상이 무어라 하든 상관 없다.

마르타 발렌시아 바스케즈

십대 시절, 청년 회장님께서
청녀들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다. 바로 성전 사진이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과 성약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언젠가는 성전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라고 복돋워 주셨다.

나는 자매님이 주신 권고를 가슴에
새기고 성전에 가도록 준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그 당시
코스타리카에는 성전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성약이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주님과 더 많은 성약을 맺을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다.

당시에는 우리 가족 누구도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집에서 복음을
배울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

복음 표준을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미나리는 아주 이른 아침에
열렸지만,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도
준비 과정에 포함시켰다.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것은 순결의 법대로 사는 것을 뜻했다.
순결의 법은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반적인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세미나리에서, 그리고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더 확고해졌다. 특히
이런 청년 용사에게서 영감을 받은 때가
생각난다. 엘마서 53장 20~21절에 나와
있듯이 이 청년들은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청년 성인의 힘을 위하여

“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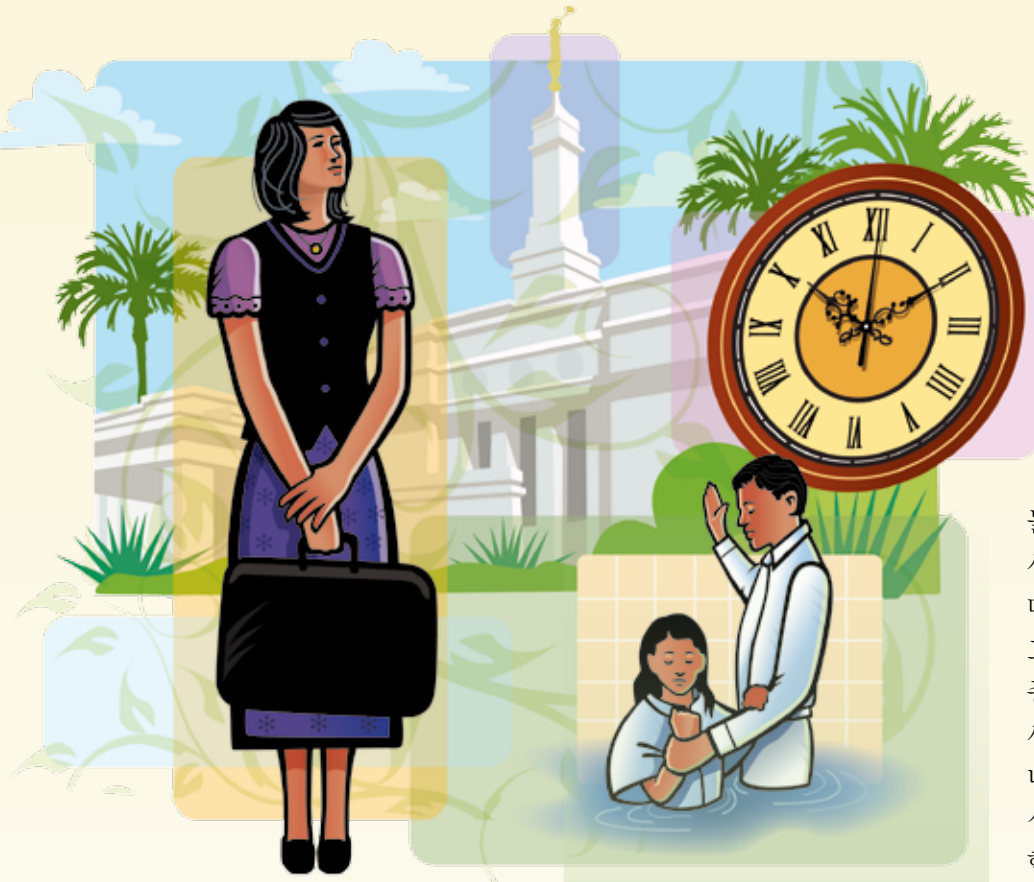
여러분은 살아 있는
참된 선지자들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토록 간단한 문제입니다. 도덕과
관련된 교회 표준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
다수가 더 이상 청년 청녀가 아니지만,
거기에 나오는 표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의 도덕 표준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서적을 읽겠다고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준 권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러한 행동 방침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주어진 권고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미끄러운 비탈
위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곳입니다.

선지자들을 따르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주는 권고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것처럼 단순한 신앙에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맞닥뜨릴 모든 어려움을
안전하게 헤쳐 나가도록 인도할 힘이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When
Shall These Things Be?” *Brigham Young
University 1995~1996 Speeches*(1996년), 189쪽.



자들이었더라. ……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침례 성약을 포함하여 내가 맺은 일에 충실하고 싶었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서 나는 성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성전에서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이 떠올랐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몫을 다하신다는 성약에 대한 개념은, 내가 선교 사업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하도록 북돋아주었다. 그렇게 하자 선교 사업

내가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은 그 성약을 맺은 그날처럼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기간 동안 동반자와 나에게는 여러 축복이 뒤따랐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여러 해가 지났다. 하지만 나는 계속 성약을 지키면서 힘을 얻는다. 그 뒤로 나는 코스타리카 산호세 성전에서 7년 동안 봉사하는 축복을 받았다. 성전 봉사자로 일하면서 내가 맺은 성약을 수시로 기억할 수 있었다. 청년 조직에서 봉사할 때도 그때처럼 성약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성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일들이 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순결의 법을 (또는 경우에 따라 종교에 바탕을 둔 행동 전체를) 고리타분하게 여긴다. 다행히 나는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서 압력을 느끼거나 세월이 주는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청년 시절에 지도자에게서 성전 성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격려를 받았던 그때 그 느낌을 떠올려 본다. 나는 그때 다짐한 결심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다.

나는 내 결심을 굳게 지킬 수 있다. 단순히 나 혼자, 나 자신만을 위해 결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결심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포함된다. 세상이 무어라 하든 상관 없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주님과 약속했다. 이것은 명예가 걸린 문제이다. 내가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은 그 성약을 맺은 그날처럼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사는 일이 늘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간증이 있다. 성약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모로나이서 7:33 참조) ■

마침내 귀를 기울였다

익명

대 학생 시절, 나는 집에서 먼 도시에 있는 꽤 괜찮은 일자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축복을 받았다. 오랜 친구가 근처에 살았는데 우리는 종교가 달랐지만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편한 친구로 지냈다.

매들린(가명)을 처음 만났을 당시 우리와 함께 일하는 다른 여성도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모범적인 후기 성도였다. 그때 영은 내게 사소한 선택만으로도 훗날의 인생 경로가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그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를 알려 주던 일을 기억한다. 실제로 나는 그러한 영적 느낌을 수년간 잊지 않았다.

몇 년이 흐른 뒤, 다시 연락하게 된 매들린과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의외로 긴장이 되었다. 내가 탄 기차가 매들린이 사는 도시에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데이트는 높은 표준을 지닌 사람들과만 해야 해.”

‘이건 데이트가 아닌 걸.’ 하고 나는 생각했다. ‘오랜 친구와 시간을 좀 보내려는 것뿐이야.’ 영은 반복해서 내게 경고했고 내가 그것이 진정 데이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나를 압박했다. 비로소 나는 그 친구가 현재 어떤 표준과 방식으로 생활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매들린은 내가 후기 성도라는 걸 알아.’ 하고 나는 합리화했다. ‘내 표준을 잘 아니까 문제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내가 예전에 감지했던 그 “미묘한 차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의 길을 갈라놓은 것은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속삭임을 따라 약속을 취소하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들린이 화를 낼까 봐 몹시 두려웠다. 성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영적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우리가 하기로 한 활동 중 하나가 좀 불편하다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그날 저녁 약속에서 빠져나올 그럴듯한 구실이 되기를 바랐다. 매들린은 실망하며 다른 것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안도하며 다른 것을 하자는데 동의했다. ‘영이 내게 경고한 이유가 그 활동 때문일 수도 있어.’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따금씩 영은 내가 느꼈던 경고가 중요하다고 속삭였다. 처음에는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사소한 것에서조차 우리는 표준이 달랐다. 매들린이 포도주를 주문했을 때, 나는 술을 사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들린은 내 뜻을 존중해 주었고 자신이 술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영적 불안감은 밤이





막 경로에서 벗어났습니까?

“너무도 자주 ……
우리는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는, 뒤늦게야 몇
도의 오류가 우리를 영적인 재난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몇 도의 차이”,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58쪽.

“오랜 친구일 뿐이잖아, 이젠
데이트가 아냐.”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영은 내게 거기 가선 안 된다고
계속 경고했을까?

깊어갈수록 커져만 갔다. 저녁 식사를
마칠 즈음, 곧 떠날 생각에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막차가 곧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사는 곳은 택시로
가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염려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매들린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 시점에 이르자 영은 이미
내가 알던 점을, 즉 그녀 집에 머무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매들린을 집으로 데려다 주며 나는
침착해 보이려 안간힘을 썼다. “정말 안
자고 갈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확고했다. 그녀가 너무 앞서 가거나
무례했던 것은 아니지만 영이 내게
조용하지만 천둥보다 더 명확한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기차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늦지 않게 기차역에
도착하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다. 애굽에서 요셉이
유혹으로부터 뛰쳐나왔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창세기 39:7~12 참조)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
두려운 마음과 감사함이 교차한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한 두려움과
성신이 함께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이다. 영은 내게 속삭였고 나는 더
일찍 귀 기울였어야 했지만 그 후에도
결국 속삭임에 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그날 밤 상황을 보는 내 시각이
주님이 보시는 것만큼 명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듯이
말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둘러
선택하고 곧 잊어버린다. 또 어떤
선택에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얻기도 한다. 나는 성신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즉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르도록
마련하신 길에 더욱 확실하게 머물 수
있음을 감사한다. ■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가고, 가정의 밤도 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복 음대로 살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그러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묘안이 떠오르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금식하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을 유심히 읽어 보았습니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이 변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시련을 겪는 동안 주님께서 가족을 강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계속 견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모사이아서 24:15 참조)

만약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그들을 용서하고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용서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며, 문제를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발휘하는 힘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적은 가족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견디십시오. 교회에 계속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하고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순종하면 성신을 느낄 수 있으며, 성신의 인도는 우리가 구하는 답을 찾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강한 가족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안내자들을 활용하십시오



어쩌면 가족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강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혼자서 문제와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전, 살아 있는 선지자,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령과 같은 중요한 안내자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족이 단합하고 강화되며 고양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재러드 엘, 18세, 필리핀 민다나오

시련 속에서 배우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어려움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역경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주변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 기도하고, 시련을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신앙을 지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힘을 얻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맥켄지 시, 18세, 멕시코 치와와

가족 선언문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에 직면할 때, 이는 오히려 가족이 협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가족은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문제를 헤쳐 나가거나 혹은 단지 함께할 시간을 찾고자 노력할 때 서로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희 가족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공유하는 거룩한 유대와 저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안나 지, 15세, 미국 조지아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하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호세 시, 18세, 페루 앙카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도 가족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의문이 들 때, 욱의 이야기와 욱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를 기억하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욱기 19장 25~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욱은 가장 힘든 도전에 처했지만 여전히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욱과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전에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구속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메건 비, 17세, 미국 유타 주

희망으로 문제를 대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대면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등 최선을 다하면서 문제를 통해 우리가 정화되고 중국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주 다른 사람들을 도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욱 작아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레이몬드 에이, 18세, 가나 아크라

끝까지 견디십시오

가족은 창조자의 계획에서 중심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대적은 우리가 복음에 중심을 둔 행복한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일단 교회에 가고 가정의 밤을 하면 우리의 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가족이 그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터들리 장로, 21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교리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모든 가슴 아픈 결과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선지자들이 주신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강화하는 열쇠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영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을 강화함: 우리의 거룩한 의무”,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7쪽.

다음 질문

“몹시 화가 날 때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1년 5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5/11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2:19~20;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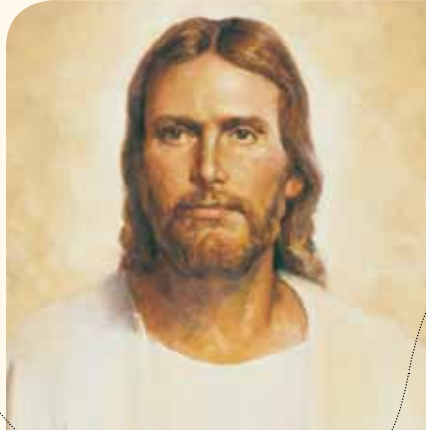
교리와 성약 76:22~24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현대의 증거입니다.

여러 증언

이 계시에 앞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증언이 있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11~18 참조)
- 예수님 시대 사도들(마태복음 28:9~20; 마가복음 16:14~20; 누가복음 24:36~53; 요한복음 20:19~29; 21장 참조)
-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누가복음 24:13~35 참조)
- 스테반(사도행전 7:55~56 참조)
- 바울(사도행전 9:1~6 참조)
- 니파이인들(제3니파이 11~28장 참조)
- 모로나이(이더서 12:39 참조)
- 조셉 스미스(조셉 스미스-역사 1:16~20 참조)



22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23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24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슬퍼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남긴 간증을 읽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하셨던 신세계 사람들이 전한 간증을 읽었으며,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성스러운 숲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며 삶을 마감한 한 사람의 간증을 믿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 다시 부활했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89쪽.



하나님에게로 난 아들과 딸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찬란하며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불완전함과 자기 회의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즉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물에 비친 그림자"(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 2009년 11월 1일); CESfiresides.lds.org에서 볼 수 있음.

여러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무수한 세상을 지으신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지구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에베소서 3:9; 히브리서 1:2 참조)



우주에는 사람이 사는 행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행성의 하나님만은 아닌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5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재건의 보상

지진이 만든 폐허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이들 못지않게 죽은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애슐리 다이어

나는 중국 상하이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로 중국 남서부에 있는 쓰촨성에 갈 기회가 있었다. 몇 년 전, 그 지역을 황폐화시킨 지진으로 집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주택 재건을 도우러 갔다. 우리는 벽돌도 쌓고, 회반죽 삼질도 하고, 벽돌을 가득 실은 손수레도 밀고, 길게 줄을 서서 벽돌을 옆으로 전달해 가며 열심히 일했다. 둘째 날이 되자 허리도 아프고 장갑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고, 또한 청년 가치관 중 하나인 개인적인 가치, 곧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은 간증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 힘든 일을 해내면서 나는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보다 불운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다. 그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깨달았다. 그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개별적으로 모두 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여행 막바지에 우리는 한 휴양지에서 점심식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도착해 보니 그곳도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초토화된 현장은 난생 처음이라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건물 천장과 벽은

무너지고 주변 나무들도 쓰러지고 여기저기에 돌무더기만 가득했다. 한 건물은 집채만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와 벽을 뚫고 들어가서 천장과 벽도 모두 내려앉은 상태였다. 문간에는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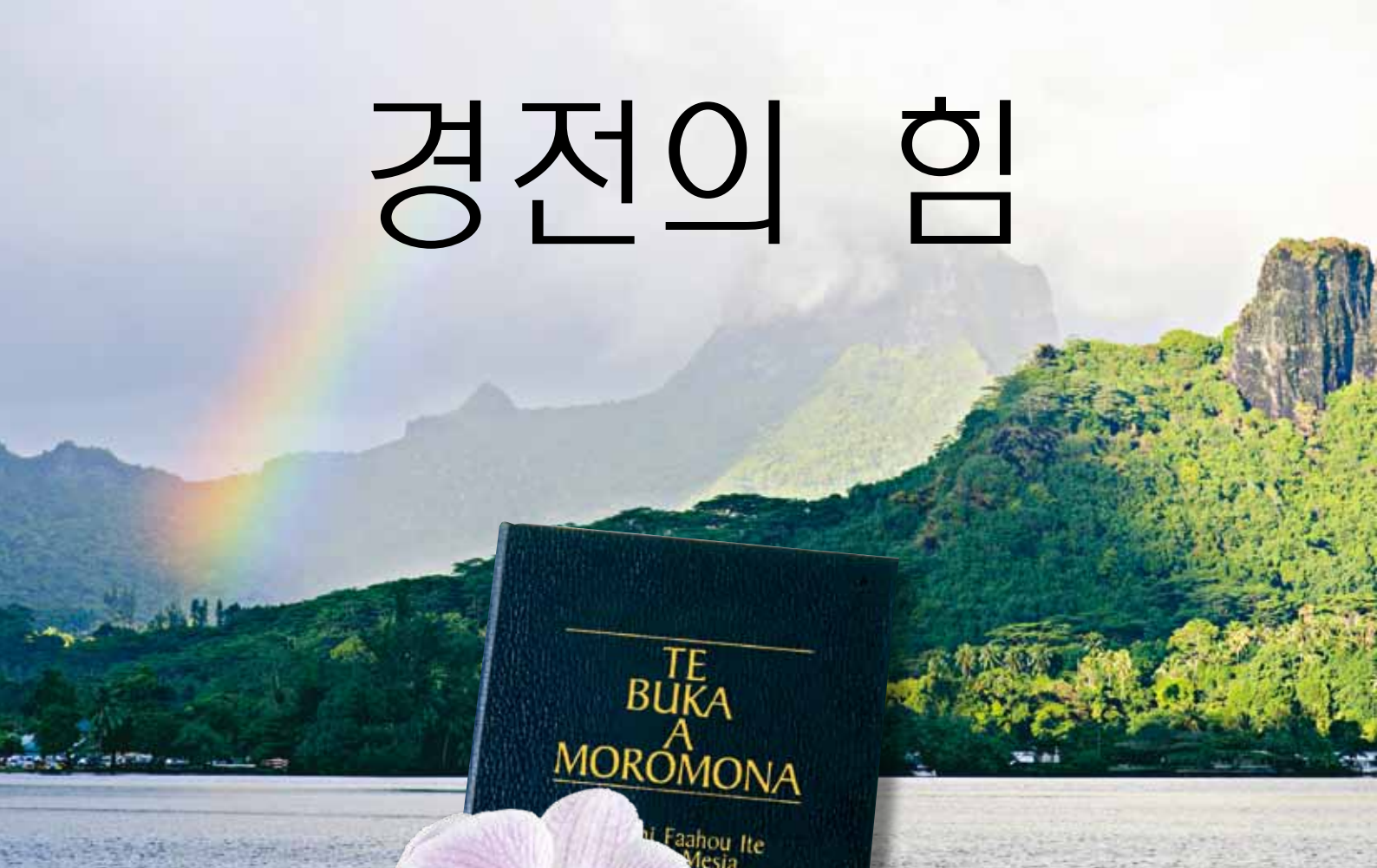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그 참사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 그러자 전에 청년반에서 토론한 일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처음엔 그 사실을 떠올리면 오히려 더욱 슬퍼졌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영의 세계에 있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이고 평온해졌다.

나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분의 사랑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다. 이 사실은 쓰촨성 지진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함께 일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다. ■

애슐리 다이어(오른쪽)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발생 후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재건 일을 도왔다.



경전의 힘



두 타히티 청소년, 경전 읽기에 변화를 주자 결국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루마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바이티아레는 세미나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자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

왜 안 해?

십대 아이들이 왜 매주 목요일 밤마다 두 시간을 엄마와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선택하겠는가? 1년 전, 타히티에 사는 루마 테루아테아도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루마는 오히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물어지도 모른다.

세미나리를 하는 3년 동안 루마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경전 독서 과제를 주실 때 한 번도 제대로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루마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독서 과제가 싫었어요. 경전에 흥미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루마는 왜 와드와 스테이크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과 공과를 할 때마다 경전을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님이 경전을 너무나 쉽게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세미나리 마지막 해에 타히티 파 스테이크가 경전 퀴즈 대회를 열기 위해 세미나리 학생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었을 때, 루마는 경전을 한 번 읽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하는 주례 학습이 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루마와 어머니는 다음날 있을 반 대회를 위해 함께 공부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는지 익히고, 심지어 그 중 많은 구절을 외우기까지 했다.

그때부터 루마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경전을 공부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루마는 경전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읽는 내용에 대해 기도하면서 루마는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했기에 루마는 스테이크 경전 퀴즈 대회에서 팀이 우승을 거머쥐도록

*루마 테루아테아(아래)와 그의 세미나리반
반원들이 자신의 경전 지식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근처에 있는 무레이(왼쪽)로 여행했을 때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루마는 이미
승자였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벼락치기 공부는 대체로 경전을 매일 읽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교훈에 친숙해지십시오. …… [주님과 선지자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기며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유혹을 피하고 성신의 지시를 받는 능력이 커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68쪽.

이끌 수 있었다.

루마는 경전을 공부하며 교훈을 배웠고, 그것이 자신에게 온 축복임을 깨달았다. “모사이야서 2장 24절에서 베냐민 왕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면 그 즉시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루마가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올해 경전을 공부한 이후로 물론경이 참됨을 알게 된 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을 때 바이티아레 피토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세미나리를 해 본 적 없는 신회원이 파 스테이크 경전 퀴즈 대회에서 자기 팀이 우승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

바이티아레는 이렇게 말한다. “경험이 적은 것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선교사 토론에서 세미나리 구절 중 상당수를





타히티에 사는 바이티아레 피토는 경전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자 축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워드 선교 책임자가 바이티아레의 집에 선교사들을 데려 왔을 때 가족들 대부분이 교회에 들어왔다. 선교사들은 가족 화합과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가족은 복음 때문에 크게 변화했어요.” 바이티아레가 말한다.

그러나 복음이 열일곱 살 난 소녀의 독립적인 성향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침례 받은 뒤로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세미나리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미나리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결국 바이티아레는 스스로 세미나리에 가겠다고 결심했고 세미나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바이티아레는 루마와 같은 경전 퀴즈 팀에 배정되었다.

처음에 바이티아레는 경전 독서 과제를 읽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읽어가기로 마음먹자 얼마 안 가서 몇 가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경전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경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바이티아레는 경전에서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세미나리에 가거나 경전을 읽는 등 어떤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보다 결심을 지키기가 쉽다는 것을 배웠다.

한 학년이 끝난 지금, 바이티아레는 세미나리에 가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저는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

축복문에서 실마리를 찾다

스코트 탈보트

나 는 스페인어로 봉사하는 장로로서 텍사스 휴스턴 남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하루는 동반자와 구도자를 찾느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다가 낡은 나무 현관이 있는 집에 이르렀다.

문을 두드리자 연로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안으로 맞아 주셨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그곳을 찾아왔는지를 아주머니께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친절하셨다. 우리는 첫 번째 토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순조롭게 풀려 나가는 듯 했다. 곧 내가 조셉 스미스와 첫 번째 시현에 대해 가르칠 순서가 되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분명했다.

그때까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고,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다. 아주머니는 첫 번째 시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맥이 쑥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날은 아주 긴 하루였다. 선교사에게 가장 곤란한 일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점점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때 내 축복사의 축복문에 있는 짧은 구절이 떠올랐다. 미래에 꾸릴 내 가족에 관한 부분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의 개념에 대해 가르치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생각난 것이다. 그 단락이 머리를 스치고 지날 때, 영은 나에게 자녀를 가르치듯이 겸손한 여인을 가르치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더 간결하면서도 다정하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자녀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들려주고,

선교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칭 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가능한 곳에서는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사 지침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아이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아버지인 나를 올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 모습은 놀라웠다. 눈썹이 바짝 올라가고 눈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워하시던 모습은 흥미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자 아주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니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에는 영이 가득했고 나의 좌절감은 엄청난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자녀에게 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 엄청난 기쁨을 다시 느낄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 유 한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것을 몹시 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는 큰 빚을 지게 되는 일과 특히 그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에 대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몹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용증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돈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만기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고, 돈을 갚는 일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저편 어딘가로는 항상 채권자를 생각했지만 모든 빚을 갚아야 할 그날이 닥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이따금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공의를 선택할 것인가 자비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계약이 끝나는 그날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빚을 청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부채를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채권자가 자기 소유물을 모두 가져갈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옥에 보낼 권리까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군요. 제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대로 당신의 재산을 차압하고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겠소. 당신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소.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오. 당신이 이 차용증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그대로 이행해야겠소.'

그 말을 들은 채무자는 애원했습니다. '지불 기한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제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자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채권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란 언제나 편파적이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오.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다면 나는 빚을 못 받게 되오. 나는 공의롭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오. 당신은 공의를 믿으시오.'

그러자 채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용증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나는 공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공의가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공의는 내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자비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습디다. 또 언젠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았지요.'

채권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의대로라면 당신은 계약대로 빚을 갚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아야 하오. 그게 바로 법이오. 당신이 그에 동의했으니 그대로 이행해야 하오. 자비로 공의를 강탈할 수는 없소.'

한 사람은 공의대로 할 것을 주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어느 한 쪽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값을 대신 치르시어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선지자 엘마가 공의, 자비, 속죄를 설명한 엘마서 42장을 읽는다.



영원한 율법에 따라,
기꺼이 우리가 진
빛을 대신 갚아 줄
능력이 있어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비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당신이 빛을 탐감해 주지 않는다면 자비롭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채무자는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시오.’ 하고 맞섰습니다.

두 가지 법은 공존할 수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영원한 이상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온전히 성립될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의의 규칙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온전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중재자

채무자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는 채무자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궁지에 빠진 친구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 채권자를 바라보며 이같이 제의했습니다. ‘내가 빛을 갚으면 이 사람을 계약에서 풀어 주는 동시에 재산도 빼앗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채권자가 그 제의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중재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공의롭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친구가 빛을 갚을 수 없으니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정하게 받게 되는 것이므로 더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권자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재자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빛을 갚아 준다면 나를 당신의 채권자로 받아들여주세요?’

채무자는 외쳤습니다. ‘네, 그러고 말고요. 당신은 나를 감옥에서 구해 주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이 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정하는 조건대로 나에게 빛을 갚아야 하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이오. 방법은 내가 마련해 주겠소.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오.’

이렇게 채권자는 빛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공의롭게 대우받았습니다. 계약은 전혀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모두 성립된 것입니다. 중재자가 있었기에 공의도 제 몫을 다 주장할 수 있었고 자비도 충족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재자

우리 각자는 일종의 영적인 채무, 즉 빛을 지고 삽니다. 언젠가 거래는 종료되고 빛을 청산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그날이 이르러 저당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날이 임박하면, 우리는 초조함에 몸부림치며 주위를 둘러보고 누구든 우리를 구해 줄 사람이 없는지 찾을 것입니다.

영원한 율법에 따라, 기꺼이 우리가 진 빛을 대신 갚아 줄 능력이 있어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비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중재자가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공의는 온전히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범법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우리에게서 마지막 하나 남김없이 전부 몰수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영광스런 진리는 그러한 중재자가 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 그분을 통해 영원한 공의의 법을 거스르지 않고도 우리 각자에게 자비가 온전히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맺는 성약을 통해 베풀어집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필수 조건인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포함하는 주님의 조건, 즉 자비로운 조건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공의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치유되는 자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자”,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4~56쪽에서 발췌.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이야의 선택

마르셀 니용기
실화에 근거

집 앞에서 놀던 나이야를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나이야,

청과물 가게에 가서 저녁 준비에 쓸 당근
좀 사 올래?” 이모가 물었습니다.

“네!” 나이야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야는 가게에 가는 일과 이모를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나이야는 이모에게서 돈을 받아
근처에 있는 가게를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저녁 만들 때 쓸 당근을 사야
해요.” 나이야가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나이야의 장바구니에
당근을 넣어 주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나이야는 아저씨에게
당근 값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여기 잔돈이다.”
하며 나이야에게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나이야는 인사를 하고 집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걸어가면서
나이야는 가게 아저씨가 주신 잔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돈을 더
주셨네.’ 나이야는 생각했습니다. ‘더
받은 돈은 이제 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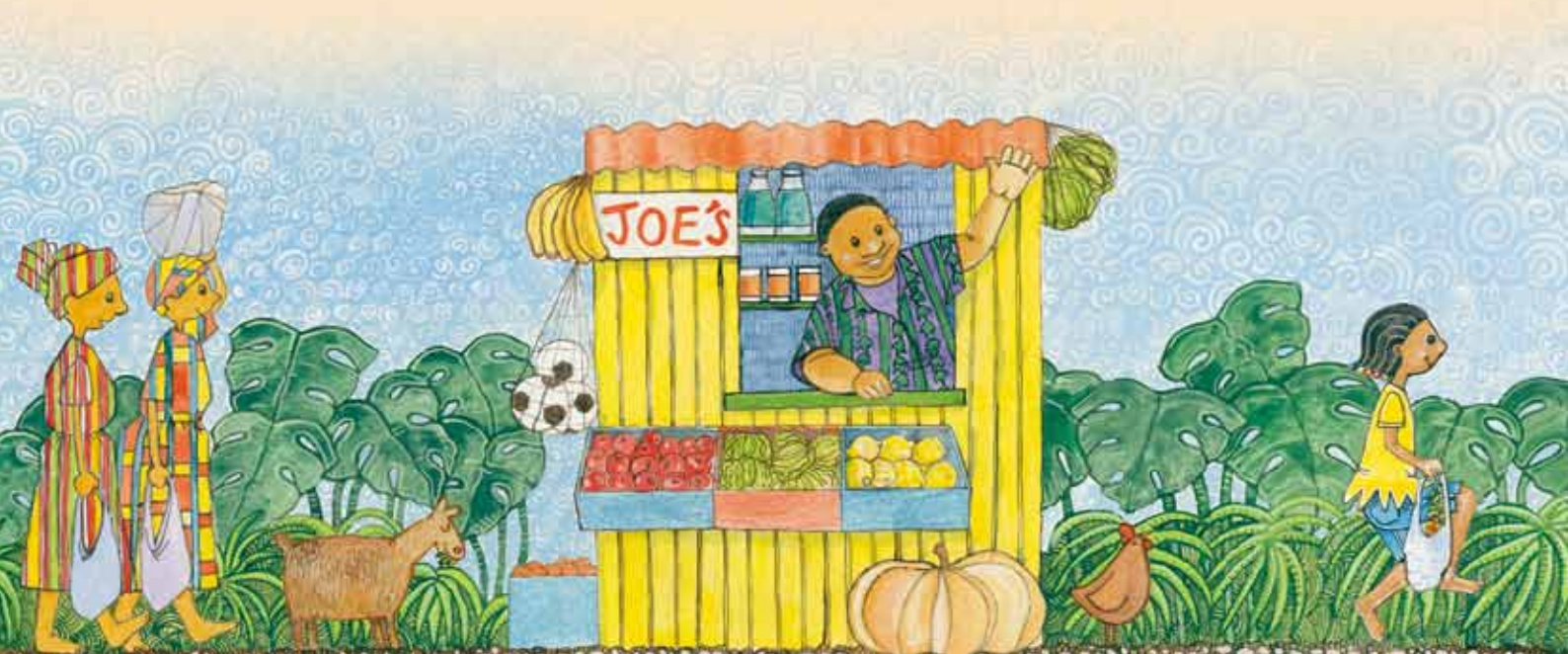
그러다가 나이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이야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말과
행동에서 정직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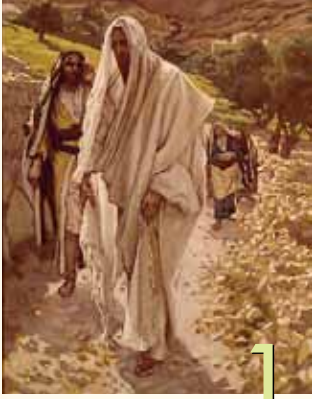
나이야는 돌아서서 가게로 다시

갔습니다. 나이야는 “아저씨, 돈을
더 주셨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주인 아저씨에게 더 받은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돈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참 착한
아이로구나.” 그러면서 아저씨는 사과
몇 개를 봉지에 넣어 나이야에게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줘서
고맙구나. 이 사과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렴.”

집으로 걸어가는 나이야의 마음은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나이야는
자신이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토요일

유월절이라 불리는 중요한 명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 성전에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5일간 그곳에 계시려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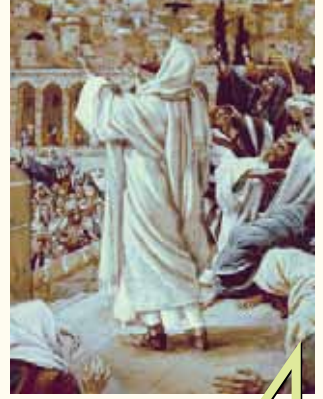
일요일

예수님은 걸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구약에
나온 구절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구주께
먼지가 묻지 않도록 나귀 앞으로
종려나무 잎을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신 후에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스가랴 9:9; 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1:1~11 참조



월요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의 집”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제사장들은 화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1:12~17; 마가복음
11:15~19 참조



화요일

예수님은 성전과 감람산이라 불리는
언덕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5:31~46; 26:14~16 참조

부활절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세요.
부활절 8일 전부터 시작하여 요일별로
적힌 사건과 경전 구절을 읽어 봅시다.



5

수요일

경전에는 이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읽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재림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1~13 참조**



6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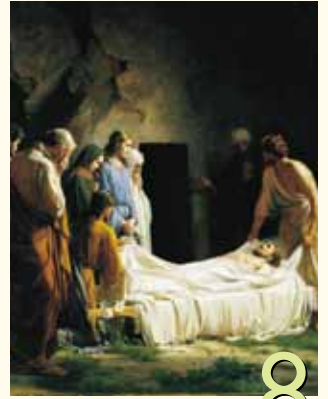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때 처음으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성찬은 제자들이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자 겔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17~29, 36~56 참조**



7

금요일

예수님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이 임명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셉이라 불리는 한 부자는 무덤을 마련하여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57~72; 27:1~2, 27~37; 누가복음 23:44~46, 50~56 참조**



8

토요일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간악한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아무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 경비병을 세워 두라고 일렀습니다. **마태복음 27:57~66 참조**



부활절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돌을 굴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하시며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참조**

사진: 예루살렘; 위, 왼쪽부터: 예수님께서 바다위에 거닐어 가시다, 제임스 티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인상을 하시다, 헤리 앤더슨 © P.R.; 장남을 지유함, 헤리 앤더슨, PACIFIC PRESS PUBLISHING, INC.의 허락을 받아 게재; 복사 그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제임스 티스; 현명한 다섯 여인, 윌리엄 레인; 교회에서 박물권의 허락을 받아 게재; 겹겹이 둘러싼 프라테릭스보르그 소제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 복사 그림; 아메: 주가 일어나시다, 뮌 파슨

전 세계 어린이 미술 작품

“복음은 내 삶을 축복해요.”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어린이 미술전 출품작들

앞으로도 우리들 이야기에 미술전 작품들이 계속 연재됩니다. 다른 출품작들은 www.liahona.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자 에이, 10세, 브라질



다샤 케이, 11세, 우크라이나



제니프 에프, 9세, 멕시코



청-치, 6세, 타이완



베스 비, 5세, 캐나다



다니엘 에스, 5세, 프랑스



캐런 월, 6세, 볼리비아



나탈리에 에스, 9세, 과테말라

캐롤라이나 에이, 7세, 페루



사라 알, 9세, 아르헨티나



레오나르도 티, 8세,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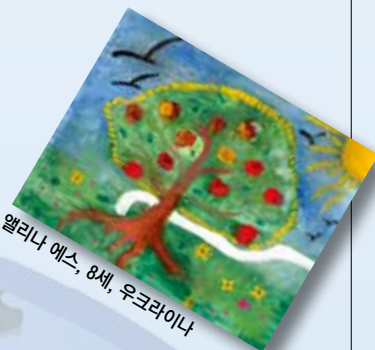
패티마 비, 5세, 페루



리 더블유, 9세, 폴란드



에디슨 오, 10세,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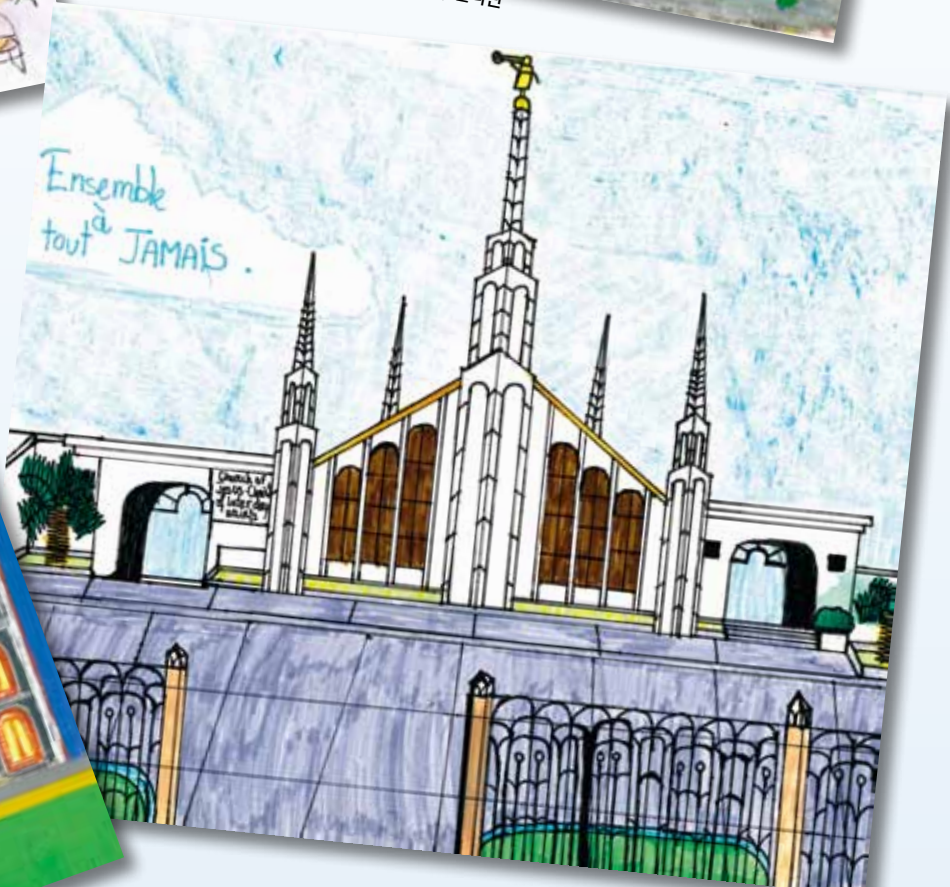
알리나 에스, 8세, 우크라이나



바네사 지, 11세, 멕시코



구엔 알, 12세, 필리핀



리 제이, 11세, 타히티



에르테네자르갈린 오, 8세, 몽골



아만다 지, 12세, 에콰도르



마르티나 에프, 11세, 아르헨티나



아드리아나 비, 10세, 에콰도르



호세 브이, 5세, 페루

특별한 증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출처: 브라이언 바치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102쪽에서 발췌.

비록 삶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진리의 쇠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보호의 계획을 따름으로써 유덕하고, 생산적이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계속해서 주님께 둔다면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인도를 구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전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성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 도움이 있기에 여러분은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이 공과와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아나 마리아 코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신앙개조 제3조)

여 러분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주고 싶은가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범하면 그분과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애정 어린 행위를 속죄라고 부릅니다. 속죄

덕분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삼 일이 지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과 영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봉사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계명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



활동

점을 이어서 빈 무덤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완성하고 색을 칠하세요.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세요.



행복한 우리 집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분 타와 니스는 캄보디아 시엠 립에 사는
남매이다.

여덟 살이 되자, 분타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니스도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성신을 받고 싶어요.” 니스가 말한다.

분타와 니스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분타는 자라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 니스는 “할머니 선교사”, 즉 연로한 선교사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



분타와 니스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전 세계 사람들은 분타와 니스가 사는 도시에 있는 고대 건물을 보러 여행하지만 분타와 니스는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를 제일 행복해 한다.



분타와 니스에게는 경전을 읽고, 숙제를 하고, 리아호나를 읽는 특별한 야외 공부 장소가 있다. 분타와 니스는 자신의 경전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매일 경전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니스는 리하이의 꿈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하고, 분타는 니파이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한다.



니스는 공기 놀이를 좋아하고, 분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눈에 띄는 모든 공은 분타에게 축구공으로 쓰인다.

분장 놀이

카아레 레빌
실화에 근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자녀이니”(신명기 14:1)

1. 엘리스는 분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신발을 신고 가짜 딸기코를
코에 붙였습니다.

나는 우스꽝스러운
광대야.

2. 엘리스는 방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플라스틱 망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3. 엘리스는 다시
방으로 뛰어가기
전에 바닥에
망치질을 했습니다.

나는 힘센 건축가야.

4. 엘리스는 반짝반짝 보랏빛과 은빛이 나는 드레스를 입고 빙글르르 돌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6.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엘리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초록색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엘리스는 방에서 걸어 나와 엄마 무릎에 앉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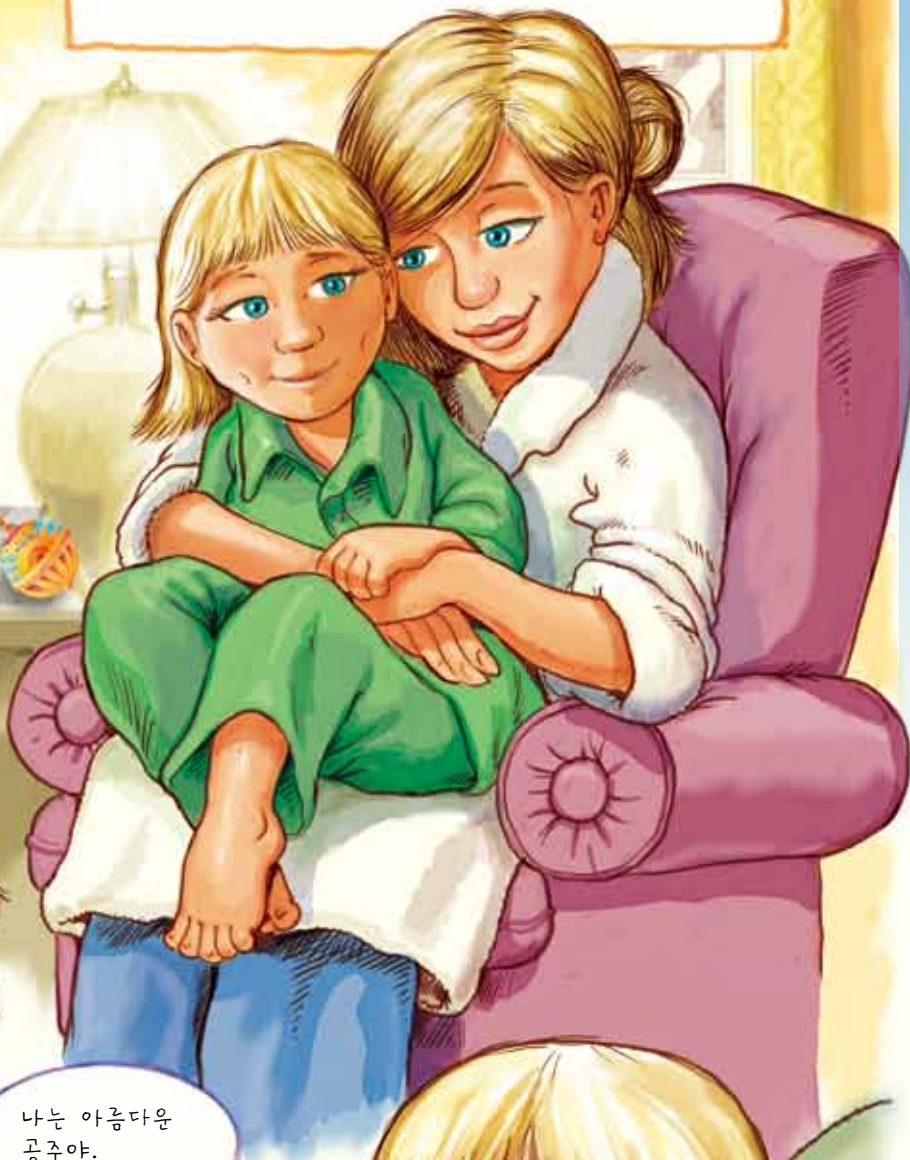


5. 엘리스는 공주가 되는 것이 좋아서 하루 종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공주야.

7.

나는 엘리스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어떻게 생겼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에 있는 동그라미 속 아이들을 보고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찾은
아이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부모를 위한 제언

여러분 자녀의 신체 특징이나 성격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아이에게 개성을 불어넣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자녀가 지도 속에 나오는
각 아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침서 훈련 모임에서 구원 사업을 강조하다

애덤 시 울슨
교회 잡지

20 11년 2월에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새로운 지침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모임은 지침서를 처음 소개한 2010년 11월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연사들은 더 영감 어린 방법으로 지침서를 사용하는 법과 새로운 지침서에 실린 교리적 토대를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 여건에 맞게 원리를 조정하여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구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변경된 지침서 내용을 적용하는 방법, 평의회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방송에는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셀 엠넬슨 장로,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쿠엔틴 엘 쿡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닐 엘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브루스 디 포터 장로,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 그리고 본부 보조 조직 회장들이 참여했다.

더 영감 어린 방법으로 지침서를 사용하십시오

아이어링 회장은 이 훈련 모임을 “지침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재발견할 기회”라고 일컬으며 지도자들에게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우도록 독려했다.

“지침서에서 읽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오직 영에 따를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 매일 봉사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계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신앙과 근면 없이는 계시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옵니다.”

아이어링 회장은 지도자들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말씀을 ……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르려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봉사하고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침서의 교리적 토대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지침서는 교리에 중점을 두며, 기존 지침서보다 분량이 적는데, 많은 주제에 대해 규정을 나열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 지침서는 영감 받은 지도자들이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 적용할 수 있도록 원리를 제시합니다.”

베드나 장로와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지침서 제2권 앞 부분에 있는 장들은 건너뛰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장들에 실린 정책만 살펴보는 경우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앞에 있는 장들은 뒤에 수록된 원리와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교리적인 토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베드나 장로는 지침서가 “원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적용에 대한 설명이 적어서 우리 모두는 책임을 수행할 때 한층 높은 영적 자질과 엄격한 합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원리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일에 지침서를 사용한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세운 교리 및 성약,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침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일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몇몇 다른 활동에 용인됩니다.”

포터 장로에 따르면 17장 “일관성과 여건에 따른 조정”은 현지의 지도자들이 영을 따르고 특정 프로그램을 언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 장은 어떤 것을 변경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조정이 허용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알려준다. 그 다섯 가지는 가족 상황, 제한된 교통과 통신, 소규모 정원회 또는 반, 지도자 수 부족, 안전이다.

이날 모임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터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는 포터 장로가 서면 기록으로 전한 말씀을 대신 읽었는데, 그렇게 전해진 말씀에서 포터 장로는 “적절한 조정은 교회를 약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강화시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감에 따라 조정을 할 때 현지 지도자들은 이상에 못 미치는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포터 장로는 “교회의 모든 단위 조직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교리와 의식과 신권 권능, 영의 은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르침을 서면으로 전했다.

구원 사업

지침서 제2권을 개정한 것에는 구원 사업을 진척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일에 지침서를 사용한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다루던 여러 주제를 이번 지침서에서는 5장에 “와드 및 스테이크의 구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묶어 실었으며, 이 장에는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에 관련된 지침이 실려 있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바울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 FR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입니다.”(에베소서 1:10 참조)

예를 들어 베드나 장로는 예전에는 교회의 사명 중 일부가 사람들에게 별도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실 “같은 일인데 영역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교 사업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의식을 받아들이고 성약을 맺도록 권유하는 일이다.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 교육을 비롯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의식과 성약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권유하는 일이며,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통해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은 돌아가신 분들이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을 기회를 주는 일이다.

홀런드 장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침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통해 정원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단순히 자신이 속한 정원회와 보조 조직 회원들만을 생각하여 와드 평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의 영적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참석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했다.

쿡 장로는 지침서 제2권에서 일부 정책 변화가 구원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쿡 장로는 이제 복지 모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독과 와드 평의회가 복지 관련 조치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원회 회원들과 상담하는 일에서 벨기세택 신권 지도자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성전에 가기에는 합당성 면에서 부족한 아버지가 몇몇 상황에서는 가족이 받는

**구원 사업에서
신권 지도자들은
개인에게 필요한
의식과 그 의식을
준비하도록 도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보조 조직 패널들, 새로운 훈련 자료실을 사용하다

2011년 2월에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들은 일련의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운 온라인 훈련 자료에 있는 사례들을 활용했다.

지도자 훈련 자료실은 *지침서 제2권*에 실린 원리들을 근거로 하여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실제로 겪은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다. 브라질, 영국, 과테말라, 한국에서 촬영된 비디오는 현재 번역 중이며 2011년 하반기에 온라인 상에 공개될 예정이다.

본부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와 닐 엘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장로의 인도 아래 이 비디오를 사용하며 *지침서 제2권*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토론했다.

1. 영적 준비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로즈메리 워스 자매는 한국의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모임을 계획하면서 간절히 영감을 간구하고, 실제로 응답 받은 사례를 본 뒤에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방법을 찾고 때를 기다리시는 과정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앤더슨 장로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와 워스 자매와 토론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영적으로 준비할 때 어떻게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활동과 공과와 임무 지명도 사람에게 맞추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토론했다. 앤더슨 장로는 “우리 모두는 계시를 받는다.”고 간증했다.

2. 평의회 참여

크리스틴슨 장로는 과테말라에 있는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협력하여 한 가족이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화되도록 한 성공 실화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그는 평의회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해 모든 다섯 개 보조 조직 회장인 벡 자매, 워스 자매, 러셀 티 오스구토프 본부 주일학교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데이비드 엘 벡 본부 청년 회장과 함께 토론했다.

패널들은 평의회 회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것이 와드 회원들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평의회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감독의 짐을 덜어주며, 지도자와 회원들이 어떻게 듣고, 나누고, 와드 회원들에 대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3.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일

세 번째 비디오의 주인공은 교회에서 계속 충실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영국의 한 청년이었다. 헤일즈 장로가 사회를 맡고 오스구토프 형제와 벡 형제, 돌튼 자매가 패널로 참여하여 지도자들이 부모와 교회에서 열리는 각종 평의회와 청소년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공감했다.

헤일즈 장로는 모임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오늘 보신 대로 행하고, 비디오에 나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강화하며 부름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이룰지 인도와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

의식이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변경 조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직 관리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 일은 구원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성약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신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인 또는 가족의 삶에 다음으로 필요한 의식은 무엇인가, 그 의식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평의회에 참석하는 여성들

스코트 장로는 일부 지역에서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할 때

인터넷에 실린 추가 자료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 대한 오디오, 비디오, 서면 자료를 lds.org/menu/service/serving-in-the-church에서 구할 수 있다.

*지침서 제2권*은 lds.org/handbook/handbook-2-administering-the-church에서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 훈련 모임 자료실은 2011년 중반까지 lds.org에 있는 *Serving in the Church* 편에 게시될 예정이다.



사진 촬영: 크레디트 데이먼드

**교회 지도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도자 모임에서
등등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을 참여시키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권할 때 그들이 내놓는 의견은 늘 유용하고 영감을 북돋아 줍니다.”

스코트 장로는 지도자들이 자매들을 호명하고 그들이 제시한 식견과 제언에 감사를 표하여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는 “신권 지도자들 가정에는 축복이 덩으로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내가 가정에서 하는 신성한 역할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코트 장로는 평의회 회원들에게 만장일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고 느끼면 지도자는 그 필요성을 감지하고 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회원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도자는 와드 평의회 참여자 각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나눈 생각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결정을 내린 뒤에 평의회 회원들에게 그 결정을 한 마음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스코트 장로는 와드 평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대하는 결과

넬슨 장로는 세 가지 바람을 전하며 훈련 모임을 마무리했다. 그 바람은 일을 단순하게 하여 회원들의 시간과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각 신권 소유자의 신권 권능이 성숙해져서 교회에 있는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축복이 되며, 각 회원이 헌신과 제자의 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다. ■

뉴스 속에서

꿈에서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한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2010년 12월에 꿈 방문하여 꿈 바리가다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이 스테이크는 꿈에 세워진 첫 번째 스테이크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지역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페리 장로는 꿈에 머무는 동안 태평양 전쟁 박물관과 이웃 섬인 사이판을 방문했다. 꿈에 사는 교회 회원은 1,971명이며, 이곳은 교회에서 북아시아 지역에 속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콜레라를 치료하는 후기 성도 의사들

호주에서 온 몇몇 후기 성도 의사들은 2010년 말에 파푸아뉴기니 북서 지역에 있는 몇 군데 오지 마을에서 콜레라 환자들을 치료하며 시간을 보냈다.

의사들은 환자 수백 명을 돌보았으며, 목숨을 거의 잃을 고비에 몰려 병원에 도착한 한 남성과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면 하루도 안 되어 목숨을 잃었을 여러 사람을 살렸다.

사람들은 걷거나 카누를 타고 의사들을 찾아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브리즈번에서 온 데이비드 윌리엄스와 케언스에서 온 앤서니 말러는 소게르라는 마을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200명이 넘는 콜레라 환자를 진료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러 형제는 어려움과 밀려드는 업무 속에서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의사 파견 외에도 교회에서는 의료 지원 및 정수기를 비롯한 구호 물자를 제공했다. 또한 교회는 포트모르즈비에서 위기 지역으로 식량과 비누를 발송했으며, 포트모르즈비와 브리즈번에서 개인 위생용품 세트를 발송하고 있다. 정수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부부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로 가서 구호 활동 지휘를 도왔다.

2011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소개하는 DVD

1월에 교회는 2011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2011년 청소년의 힘 DVD, 우리는 믿는다를 전 세계 교회 단위 조직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이 DVD는 청소년들이 올해 주제인 신앙개조 제13조를 생활에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매체 자료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본부 청남 및 청녀 회장의 말씀과 음악, 청소년들의 간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청소년에게 간증과 동기를 더해

세계 단신

제9회 국제 미술 대회 출품작 접수 시작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제9회 국제 미술 대회 등록 양식을 2011년 4월 4일에 온라인 상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미술 대회 출품작은 2011년 10월 7일까지 온라인 또는 일반우편으로 2011년 10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미술 대회 주제는 “그의 놀라운 일을 ……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65:4)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영어로 보거나 과거 미술 대회에서 선정된 작품을 보려면 lds.org/churchhistory/museum/competition을 방문한다.

신약전서 이야기, 이제 비디오로

2011년 신약전서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전서 이야기 책을 기초로 한 비디오가 현재 패럴랙스 기법(시차를 이용하여 입체감을 주는 기법-웁진이)을

이용하여 만화 영화로 제작되었다. 65개 비디오를 영어로 시청할 수 있으며, 각 비디오는 11개의 언어로 녹음되어 MP3 형태로 LDS.org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패럴랙스 비디오는 2011년 중에 각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비디오를 보려면 scripturestories.lds.org로 가서 New Testament Stories를 선택한다.

방갈로르 청년들,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헌신하다

30명이 넘는 인도 방갈로르 지방부 청년들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배우고 고된 신체 활동에서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 카나카푸라 언덕에 모였다. 청년들은 밧줄과 도르래 장치를 사용하여 연못을 건너고, 아침 달리기를 하며, 산을 오르고, 암벽 등반을 배운 후에 간증 모임으로 활동을 마쳤다.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다채로운 색상과 해설로 더욱 흥미진진해진 신약전서 이야기를 보고 들어보십시오.

주는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과 메시지와 간증은 올 한 해 동안 청소년 공과와 모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youth.lds.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DVD는 또한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다. ■

덧붙이는 소식

2 011년 1월호 *리아호나*에 현지인이 아닌 선교사가 아이보리코스트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실렸다.(새뮤얼 고올드, “천사가 함께하여”, 50쪽 참조) 1월호가 인쇄된 이후, 그곳 상황이 바뀌어 현지인이 아닌 선교사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었다. 교회는 선교사들이 봉사하는 지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교사들을 철수시킨다. 상황이 다시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만 선교사들을 원래 지역으로 돌려 보낸다.

애독자 편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집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잡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사를 좋아합니다. 총관리 역원이 하시는 말씀을, 특히 연차 대회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배우고 시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26년이 되었는데 리아호나를 빠짐없이 읽어왔습니다. 지나간 잡지를 종종 읽어보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기사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2005년 5월호, 99쪽)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종 사랑이 담긴 자비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울란다 발렌티, 이탈리아

주님에게서 온 가르침

매달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오며 제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제 삶에 축복이 될 것임을 압니다. 전 세계 성도들의 경험을 읽으면 제 신앙과 간증이 커집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론 다비드 칼데론 모스케라, 에콰도르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주세요.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항상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20쪽: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뒤로한 다음, 구주를 중심에 두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것을 재배열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권고를 가족과 함께 토론해 본다.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항상 구주를 기억”할 때 온다고 한 몇 가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경전의 힘”, 52쪽: 가족과 함께 기사를 읽은 다음, 경전 읽기와 세미나리 참석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경전의 힘에 관한 간증을 일지에 적으라고 권유한다. 자녀들에게 성구 익히기 구절을 공부하고 암기하라고 격려한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56쪽: 가족과 함께 기사를 읽으면서 중재자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해 보라고 권유한다. 중재자가 부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물어본다. 또한 구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성구를 읽고 토론할 수 있다. 니파이후서 2장 27~28절과 앨마서 42장 24~25절을 읽어볼 수도 있다.

“분장 놀이”, 70쪽: 가족에게 다른 사람처럼 의상을 차려입거나 그들처럼 행동해보라고 한다. 각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시간을 준다. 이야기를 읽은 다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한다.

영원한 유대를 쌓아주는 행복한 시간

어릴 때 아이들은 가정의 밤을 마치고 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는 “코끼리 트렁키”인데, 이것은 우리 딸 조셀린이 학교에서 배운 노래에서 따온 이름이다. 다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내가 트렁키라는 코끼리가 되어 아이들을 등에 태웠다. 맨 먼저 두 살배기 아들 조지가 올라타고, 그 뒤로 네 살배기 조셀린, 맨 마지막으로 아내 엘리자벳이 올라탔다. 세 사람을 등 위에 태우고 나는 거실을 한 바퀴 빙 돌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수년 후, 아이들이 자라서 두 아이 모두 선교사 부름장을 기다리던 때였다. 어느 가정의 밤 시간에 아이들은 “코끼리 트렁키” 놀이를 기억해냈다. 우리는 다같이 그 노래를 불렀고 나는 몇 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코끼리로 변신했다. 아들이 먼저 올라탔고 그 뒤로 딸 아이가, 그 뒤로 아내가 올라탔다. 나는 결국 바닥에 납작하게 쓰러졌고, 우리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때의 추억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선지자들이 가정의 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이 얼마나 간단하든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영원한 유대를 쌓아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

빅터 지 차우카 리베라



가시관, 승리의 관

래리 힐러
교회 잡지

성 지에서 8월을 보내던 어느 날, 우리는 오후의 열기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가버나움 옛터에 둘러싸여 있었다. 참으로 매혹적인 곳이었지만 안내자와 근처에 있는 매미가 한참 동안 소음을 자아내던 터라 주의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안내자가 그늘을 만든 나무를 가리키며 통명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그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다. “사람들은 저 나무를 ‘가시관 나무’라고 부릅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바라보았다. 가시가 어디 있던 말이지? 나는 손을 뻗어서 작은 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때 여린 잎사귀 사이로 가시가 보였다. 내 엄지손가락 길이만한 녹색 가시는 길쭉하고 몹시 뾰족했으며 몇 미터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잎으로 무성한 가지 중 하나이라도 닿게 된다면 누구든 아파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구주를 묘사한 많은 그림들을 떠올렸다. 재판정에 모인 폭도들 앞에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돌친 마른 가지로 엮어 만든 관을 쓴 채 서 계시는 구주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불현듯, 그 관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은 노예나 군인은 잘 부러지고 마른 가지보다는 지금 내 머리 위로 드리워진 나무처럼 유연한 녹색 가지로 관을 만들고 싶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더욱 뒷받침해 준 것은 관을 만든 목적이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내게 가시관은
구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춰진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

것이었던다는 점이다.

고대 사회에서 잎이 무성한 녹색 관 또는 화환은 보통 향기 좋은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졌으며, 대회나 전쟁 승자에게 주어졌다. 월계관은 왕과 황제의 인상을 드높여 주었다. 아마도 구주의 이마를 짓누른 잔혹한 관은 고대의 영광을 조롱하듯 빗대기 위해 무성한 녹색 잎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가정일 뿐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것이 속죄의 한 측면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바로 구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분께 입혀진 옷은 왕족 신분을 조롱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 옷은 그분께서 방금 겪으신 채찍질 자국과 상처를 가렸다. 같은 맥락에서, 잎이 무성한 가시관은 승리의 화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시관이 주는 고통을 감추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 찬송가는 이렇게 가르친다. “고요한 가슴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처가 감춰져 있네”(“Lord, I Would Follow Thee”, 영문 찬송가, 220장)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 상처를 보실 수 있다. 그분은 개인적인 고통을 잘 아신다. 그분은 성역을 베푸시는 전 기간 동안 속죄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사셨다. 비록 그분께서 가르치고 축복하고 치유한 사람들은 몰랐고, 그분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가리는 “옷”과 “관” 너머를 보신다.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은 자비로 차고 넘치시며 그분 발 아래 우리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지 아신다.(엘마서 7:11~12 참조)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깊고 감추어진 상처까지도 아물게 할 수 있는 연고와 같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관은 진정한 승리의 관이다. ■